



“그 쌤의 이중생활”

쓰임 많은 재능, 랩으로 통했다!

빛가온초등학교
이현지 교사



- ◀ 어제, 기억하기 • The-K 인터뷰 _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의 경쟁적 협력
- ▶ 오늘, 생각하기 • The-K 스페셜 _ 4차 산업혁명 시대 진화하는 교육방식
- ⏸ 지금, 쉬어가기 • 라이프 연구소 _ 안구의 안녕을 위하여
- ▶▶ 내일, 행복찾기 • The-K Zone _ 교직원 치유상담 프로그램 '마음 씬'

09

2019
VOL.25

📱 웹진



Contents

04 여는 글

2019년 9월, <The-K 매거진>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어제, 기억하기

06 에세이

그해, 9월의 성훈선언문

08 The-K 갤러리

지금, 행복 그리고 우리

10 The-K 인터뷰 1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을 보다
_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최재천 석좌교수

14 The-K 인터뷰 2

학교와 마을이 하나되어 교육하다
_ 강원도 횡성 공근초등학교 서동범 교사

18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

임시정부의 파수꾼 '차리석 선생'을 만나다



오늘, 생각하기

22 The-K 스페셜

국가경쟁력 확보의 첫걸음,
교육에서 시작된다

26 The-K 리포트

미래 교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8 공간의 재구성

도형의 최소단위 삼각형,
그 안에서 가장 큰 꿈을 꾸다
_ 경기도 남양주 동화고등학교

32 [+25] 그 쌤의 이중생활

쓰임 많은 재능, 랩으로 통했다!
_ 빛가온초등학교 이현지 교사

36 [+35] Be Myself

진짜 관참은 나를 찾아라!

38 [+45] 티처&티처

중2 교사면서 중2 자녀를 둔
엄마를 위한 자녀교육 노하우

40 [+55] 인생 2모작

시간을 거스르는 열정,
나이를 뛰어넘는 의지
_ 국내 최고령 보디빌더 서영갑 회원

발행인 차성수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발행일 2019년 9월 1일

편집 수석기자 이영경
객원기자 이경희, 정라희, 정은주, 김유리
교열 정혜영

디자인 아트 디렉터 이영임
디자이너 김도윤

사진 포토그래퍼 이성원, 김도형, 한제훈, 권대홍

법률 자문 김용욱 변호사(법무법인 JP)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이팝 웹개발팀
디자인, 제작 (주)이팝 02-514-7567



웹진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The-K 매거진〉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여 학교나 기관으로 발송해 드리며,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 지금, 쉬어가기

44 지금, 여기

거친 자연환경을 극복한
북유럽의 문화 중심지_노르웨이

50 아름다운 동행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엄마
_ 박가령 부산 금정고 교사 모녀

56 휴스데이

설악산의 사계절을 한눈에,
변화무쌍 파노라마로 만끽하다
_ The-K설악산가족호텔에 머물며

58 라이프 연구소

안구의 안녕을 위하여

▶▶ 내일, 행복찾기

The-K Zone

60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교육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떼다

64 2019년 9월 1일,
새로워진 장기저축급여 Q&A
회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66 '치매' 앞에 쫓지 말자!
The-K와 함께라면 든든하다

68 공제회원을 위한 무료 심리 상담
'The-K 마음심' 오픈

The-K Focus

70 여주 소피아그린CC와 함께하는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의 날

The-K Family

74 올 가을 여행은 바로 이곳! 오~래
머물수록 혜택이 커지는 가심비 끝판왕!

The-K News

76 문화행사 초청 및 The-K호텔 할인 소식

The-K Guide

78 공제회의 각종 금융제도과 복지서비스

& 지상 강의

80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글쓰기가
아직 유효한 이유
_ 읽히는 글을 쓰는 방법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2019년 9월

〈The-K 매거진〉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양방향 소통의 중심점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을 연결하는 핵심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종합문화정보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삶의 활기를 불어 넣는 유익하고 다양한 코너들을 대거 선보입니다. 특히 플레이 버튼을 메인 콘셉트로 The-K를 Play하듯이 독자 여러분과 양방향 소통을 구현하는 매개체로 자리할 것입니다.

- ◀ ‘어제, 기억하기’ 독자 참여 코너와 궁금한 인물을 만나보는 인터뷰 섹션으로 회원들의 글과 미술 작품 등을 소개하고, 유명 학자나 학교 현장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 묵묵히 정진하고 계시는 사례들을 찾아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 ▶ ‘오늘, 생각하기’ 기획 테마로 이 시대의 교육방식과 미래 교육을 고찰해보고, 전국 교직원 가족의 세대별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 정보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 ⏸ ‘지금, 쉬어가기’ 여행, 문화, 건강 등 힐링과 여유를 선사하는 코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 ‘내일, 행복찾기’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이슈와 핵심사업, 상품 소개 및 출자회사 뉴스를 알려드리고, 다양한 독자 참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두고두고 소장하고 싶은 책이 되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조금 더 가볍고 쉽게 <The-K 매거진>을 펼쳐 보기에 적합한 종이와 판형으로 새 옷을 입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발행 면을 대폭 늘렸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이야기, 동영상 콘텐츠에 접속하세요

매월 주요 콘텐츠를 선별하여 독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트렌디한 시놉시스와 애니메이션, 카드 뉴스 등 콘텐츠에 따라 개성이 뚜렷한 동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즐거운 볼거리를 선보입니다.

•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 하나하나가 독자 여러분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더 큰 행복을 길어 올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해, 9월의 성혼선언문

이로써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글. 김성효(전라북도교육청 장학사)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다. 성훈선언문 마지막 문장은 짧고 묵직했다. 고개를 들었다. 9월의 신부가 된 아름다운 네가, 오래 전 나를 그렇게나 속 썩이고 슬프게 하던 네가 훌쩍 자라 어른이 되어 거기 서 있었다.

그해 아이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속을 썩였는지 모르겠다. 허구한 날 싸우고 울고 누군가는 다쳤다.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 칠 때마다 너는 그 가운데에 있었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너를 볼 때마다 생각했더랬다. 우리의 시작은 정말로 괜찮았으니까.

“선생님, 머리 만져도 돼요? 저는 다른 사람 머리 만지는 게 좋아요.”

“머리 만지는 게 왜 좋은데?”

“그냥요.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 머리 만지고 빗어주는 게 좋아요.”

“그럼 틀날 때마다 이렇게 머리 만져줘. 선생님은 누가 머리 만져주면 좋더라.”

네가 머리를 만질 때면 내 마음은 한없이 풀어졌다. 어릴 때도 너는 머리 땀을 솜씨가 제법이었다. 네가 딸아준 머리는 언제나 맘에 들었다. 어느 날이었다. 수업시간에 네가 머리를 자꾸만 이쪽으로 넘겼다가 저쪽으로 넘겼다가 했다. 웬지 모르게 그런 네가 거슬렸다.

“왜 그렇게 머리를 넘기는 거نده?”

그 말에 머리를 넘기다 말고 너는 나를 뵈히 보았다. 안 그래도 동그랗고 큰 눈이 더 동그해졌다.

“그게, 아, 그…….”

못된 선생, 나는 네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다.

“누가 고무줄 좀 쥐라. 머리 묶어. 수업에 집중해.”

그 다음부터였을까. 너와 나는 서서히 멀어졌다. 네가 선생님과 사이 나쁜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된 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다. 더 이상 네가 쉬는 시간에 내 머리를 만지지 않는다는 걸.

시간이 흘러 너희들은 졸업을 했다. 더는 수업 시간에 지지고 볶지 않아도 됐다. 왜 자꾸 화나게 하냐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됐다. ‘성효샘’ 삶에 유일한 흑역사라고 스스로 말하는 너희들과의 시간은 그렇게 잊혀졌다. 너희들을 까맣게 잊고 살던 어느 날이었다.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다가 너를 우연히 만났다.

“혹시 김성효 선생님 아니세요? 선생님, 저 재회예요.”

노랗게 탈색한 긴 머리에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지만 동그랗고 큰 눈, 정말 너였다.

“어머, 진짜 오랜만이다. 너무 반가워. 이 미용실에서 일하는 거니?”

너는 내 머리를 감기면서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학에서 미용을 전공했고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을 시작했다고, 서울로

가서 더 경험을 쌓을 거라고, 여긴 너무 좁아서 배울 게 없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너의 꿈을 들었다. 그리고 네가 해주었던 뜻밖의 이야기, 너는 기억하려나.

“선생님, 그때 제가 엄청 속 썩었잖아요.”

“그랬지. 그때는 선생님이 경험도 없고 잘 못 가르쳐서 그랬나봐.”

“아니예요. 저 처음에는 선생님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왜?”

가슴이 쿵했다. 수없이 생각했던 ‘왜 그랬을까’를 드디어 듣는 거였다.

“선생님이 저 머리 새로 하고 간 날 묶으라고 했어요. 그게 어찌나 기분 나쁘던지.”

세상에! 너는 그날 머리를 새로 하고 왔던 것이다. 매직스트레이트라는 비싼 파마를 하고 왔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머리를 묶으라고 했던 거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싫어졌다고?”

“네. 그래서 싫어졌어요.”

할 말이 없었다. 그래, 그렇지. 사춘기 아이들은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선생과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온전하게 회복되기도 한다. 그땐 왜 그걸 몰랐을까. 그저 다시 네가 머리를 만

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했는데, 네가 진짜로 머리를 만져주는 사람이 되었을 줄이야.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너는 내가 자주 다니던 미용실의 디자이너로 왔다. 너는 그사이 꿈꾸던 대로 서울에서 경력을 쌓았고, 수많은 손님들의 머리를 해줬다고 했다. 너는 곧 미용실을 차렸고 나는 자연스럽게 네 단골이 됐다.

“선생님, 저 결혼해요. 부탁이 있어요. 꼭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뜻밖에도 너는 내게 성훈선언문을 읽어달라고 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기엔 성훈선언문을 읽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꼭 나여야 한다고 했다.

“선생님이 안 해주신다고 할까봐 엄청 걱정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당일에는 저희 미용실에서 머리 하고 오세요. 공짜로 해드릴게요.”

특별히 그날은 머리를 공짜로 해주겠다면서 쾌활하게 웃던 너. 나는 네가 시킨 대로 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다. 식장으로 가는 내내 떨렸다. 성훈선언문을 다 읽은 다음 네 눈에 번지던 눈물을 보고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른다. 요즘은 미용실에 갈 때마다 네가 말한다.

“제가 손님들한테 선생님 자랑 많이 해요.”

재회야. 너는 모르지만 나도 많이 자랑한다. 어딜 가나 꼭 하는 말이 있지.

“이 머리, 우리 제자가 해준 거예요.”

시간이 더 흘러 네가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고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니까. ㉞

지금, 행복 그리고 우리

〈The-K 갤러리〉는 ‘한국교직원미술대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전국 교직원들의 문화예술 창작품을
감상하면서 바쁜 일상, ‘지금, 행복,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을 나들이

양민자
익산어양초등학교

종이에 수채 | 64x45cm, 2018

어느 빛 좋은 가을날 가족들이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아름답게 물든 가을 산도 보고 울긋불긋 단풍을 즐기며
함께하는 시간이 아름답습니다.

하늘거리는 갈대밭을 따라 건다가 만난 시냇가에서
졸졸 흐르는 냇물을 살피며 건너는 징검다리는
아이에겐 아직도 두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튼튼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아이의 몸짓이
사뭇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아이의 모습에 아무렇지 않은 듯 무심한 엄마의 모습!
살며시 미소 지어집니다.





책거리

장지에 채색 | 95x95cm, 2018

기존의 책거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한국 민화의 익살스러움,
세련된 표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양혜지
중대초등학교

너를 바라보다

허윤희
삼양초등학교



유화 | 53x41cm, 2018

살랑이는 바람에 사부작거리는 너를,
붉게 타오르는 하늘빛에 살포시 물드는 너를,
가슴 시린 기다림에 긴 시간을 지나 내게 온 너를, 지금, 여기에서 너를 바라본다.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최재천 석좌교수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을 보다



평생 동물행동을 연구해온 최재천 교수에게 인간사회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구하는 이들이 많다. 끊임없이 생존투쟁을 해야 하는 인간의 굴레를 동물세계에서 더욱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화의 끝에 다다른 듯 보였던 인간사회는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앞에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더욱 그에게서 해답을 찾고 싶다.
글. 정라희 사진. 한제훈

전 세계가 인정하는 동물행동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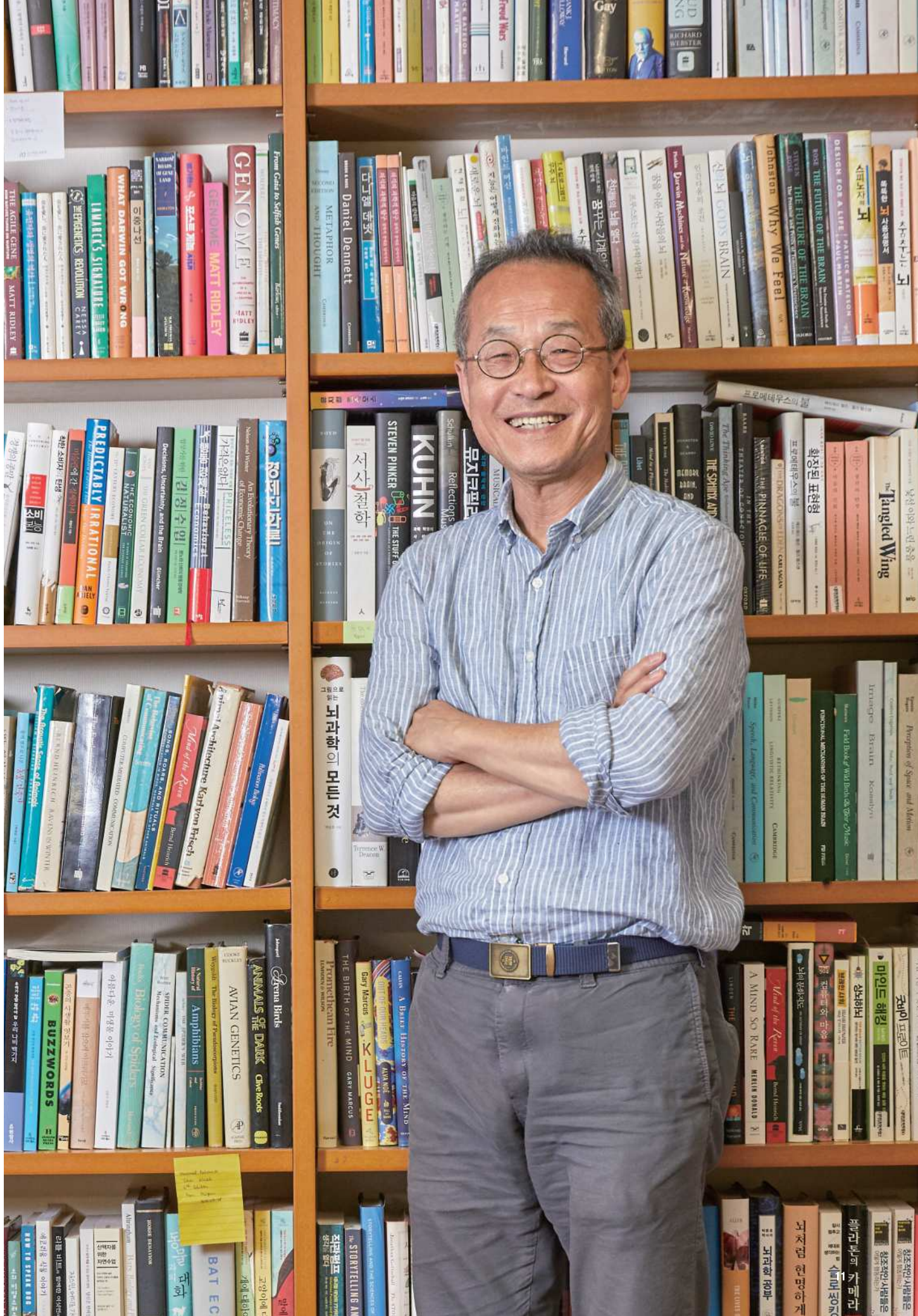
지난 봄, 전 세계 동물행동학자 530여 명이 저자로 참여한 <동물행동학 백과사전> 개정판이 출간됐다. 모두 네 권으로 제작된 이 백과사전에는 인지·진화·학습·번식 등 15개 주제의 동물행동학 최신 연구 성과가 담겨 있다. 그 과정에서 최재천 교수가 총괄편집장을 맡아 전체 집필을 주도했다. 2010년 초판 제작 당시에도 그는 편집장으로 참여했다. 17명의 편집장 중 유일한 유색인종. 단순히 인종차별의 문제는 아니었다. 동물행동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선진국에서나 해오던 학문이었기에 생긴 일이다. 초판 총괄편집장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후임으로 최재천 교수를 추천했다.

경제적인 보상이 크지 않은 일에 많은 수의 학자를 필자로 섭외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순조롭게 풀어 가는 통솔력을 발휘하며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했다. 국제학계에서 당당하게 그의 능력과 입지를 증명한 셈이다. 동물행동학에 관심 있는 학생과 대중에게도 이번 개정판은 의미가 있다. 기존 백과사전 형식처럼 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이 책의 초판은 2010년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책으로만 만들고 끝났는데, 이번에는 시작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를 모두 만든다’고 하더군요. 사실 요즘 시대에 백과사전은 좀 고리타분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백과사전이 꾸준히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작업을 해보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책을 만드는 것보다 효율적인 일이 없더군요.”

최근에는 그 유명한 찰스 다윈의 역작 <종의 기원> 출간에 관여했다. 진화학자인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장대의 교수가 번역하고 최재천 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다윈 시대에 유행했던 긴 호흡의 문장을 적절하게 끊어 번역했다. 덕분에 어렵게만 여겨지던 다윈의 사상과 이론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번역하면서 기존에 ‘생존경쟁’이라고 소개된 부분을 ‘생존투쟁’으로 바꿨습니다. 이 세상에 짝이 없는 생물은 없어요. 모두 손잡고 사는데 네트워킹을 미처 하지 못한 개체가 탈락하는 거죠.”



●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많은 분과
 제가 결정적으로 생각이 다른 지점은 '인공지능은 진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틀 안에서 정해졌지만, 생물은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자식을
 낳느냐에 따라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조합이 매번 만들어집니다.



돕는다는 것은 일방적인 자선사업이 아닌 동맹체제를 구축하는 것. 동물행동을 오래 연구해온 그가 숙고해 내린 결론은 '경쟁적 협력'이다. 한쪽이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니라, 도태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손을 잡는 것이다.

개미에게서 발견한 '함께'의 힘

경쟁적 협력의 개념은 그의 교육 방식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평생 대학교수로 살아온 그는 조교수 시절 이후 한 번도 시험을 낸 적이 없다. 어떤 교수는 '시험 없이 어떻게 성적을 나누느냐'고 묻는다. 성적이 민감한 요즘 세대에겐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돌아온다. 최재천 교수는 시험 없이 성적을 내지만, 이제껏 단 한 번도 학생들로부터 항의를 받지 않았다. 지금도 봄 학기면 그의 강좌가 개설된다. 일찍이 마음먹지 않으면 수강하기 어려운 인기 과목이다.

“대학의 문을 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는데, 시험에 익숙한 교육을 받고 나면 사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제 수업에서 학점의 절반은 팀 활동에 할당됩니다. 팀워크가 안 이뤄지면 그 팀 안에서 A를 받기는 어려운 구도이죠. 자신이 A를 받고 싶으면 팀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면 따로 공부해야죠. 첫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수업에서 인생 경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한 동맹체제, 팀 활동은 경쟁적 협력이 핵심이다. 최재천 교수가 경쟁적 협력의 개념을 찾은 배경에는 '개미'가 있다. 과거 '아즈텍 개미'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제학계의 주목을 받은 그는 평생 개미를 연구해 '개미 박사'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그가 인간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생물은 침팬지 같은 영장류가 아닌 개미다.

“침팬지를 수십 년 관찰해봐도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예를 부리지도 않고,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지도 않죠. 인간은 하고 침팬지는 하지 않는 이 모든 일을 개미는 합니다. 인간과 개미 양쪽이 누구의 답을 베꼈는지 헷갈릴 정도로 매우 많은 점이 비슷하지요.”

아즈텍 개미 중 몇 종은 땅굴이 아닌 나무 안에 산다. 나무의 마디 하나하나마다 새로운 개미 왕국이 만들어지는데, 먼저 왕국을 세운 개미 집단에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후속 개미 왕국들이 동맹을 맺는다.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함께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아즈텍 개미를 연구하면서 빨간 개미와 까만 개미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종이 다른 데도 여왕개미들이 우선 살림을 합하고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힘을 모은 거죠. 생물학계에서 종이 다른데 함께 자식을 키운 최초이자 아직은 유일한 사례입니다.”

다양성이 곧 생존의 길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고 인간의 고유성이라 여겨졌던 지능의 영역까지도 기술이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이 도태되는 것은 아니냐는 디스토피아적 전망도 이따금 나온다. 그러나 진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물론 미래를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서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많은 분과 제가 결정적으로 생각이 다른 지점은 ‘인공지능은 진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틀 안에서 정해졌지만, 생물은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자식을 낳느냐에 따라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조합이 매번 만들어집니다. 많은 경우 그 조합이 대단하지 않지만, 가운데는 매우 기막힌 조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또 엄청난 세력이 등장하죠.”

다윈의 주요 이론의 두 갈래는 ‘자연 선택’과 ‘성 선택’이다. 다윈의 성 선택 관점에 입각하면 지구상에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도 많다. 특히 번식에는 무성생식이 유리하다. 그런데도 절반의 에너지를 낭비해 양성생식을 하는 생물이 세상을 지배하는 역설은 ‘다양성’ 때문이다. 갑자기 환경이 변하면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은 다양성이 부족해 한 번에 몰살된다. 유성생식이 불리한데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여기 있다. 생물의 관점이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도 다양성은 필요하다. 요즘 그는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에서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를 살리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6개 초등학교가 신청해 그중 한 곳을 시범학교로 정해 일종의 생태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은 바람도 크다.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현재진행형으로 지낸다. 학문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깊이 있는 관점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가 있어 다행이다. ㉔







〈The-K 인터뷰 2〉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생생하고 즐거운 이야기
함께하실래요? ▶

학교와 마을이 하나되어 교육하다

강원도 횡성 공근초등학교 서동범 교사



현대에는 수많은 섬이 존재한다. 도시보단 낫다고 하지만 시골의 학교 역시 그런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에 자리 잡고 있는 공근초등학교는 그런 면에서 조금 색다른 곳이다. 나홀로 존재하는 교육의 '섬'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직접 마을로 풍덩 뛰어들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제몫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과 학교의 합은 과연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냈을까? 공근초등학교 서동범 교사의 우분투(마을교육공동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이경희 사진. 이성원

교육, 마을과 함께하다

방학 중임에도 학교는 꽤나 소란스러웠다. 등교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책 읽는 소리가 사방에서 낭랑하게 울려 퍼지고 학교 옆쪽의 텃밭에는 주렁주렁 열린 방울토마토와 고추를 살피는 아이들의 눈빛은 작렬하는 태양보다 초롱하게 빛난다.

이곳 공근초등학교가 처음 문을 연 것은 1925년. 몇 번의 새해를 더 맞으면 개교 100주년이 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이다.

“공근초등학교와 바로 옆의 공근중학교는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대부분이 이곳을 모교로 두고 있고 아들과 손주까지 대를 이어 이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곳이었죠.”

빈 교실에 마주 앉은 서동범 교사가 공근초등학교의 위상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이렇듯 사랑 받았던 학교가 점차 주민들의 관심에서 밀려가기 시작한 것은 7~8년 전부터다. 이 지역 역시 도시 분위기에 물들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가 지역사회와 교류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교장 이하 교사들이 마을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대략 3~4년 전부터였다고 한다.

“노인정을 찾아가고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보여드리고 마을축제에 아이들과 함께 구경을 다녔습니다. 우리 학교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작년부터였는데 사실 그 이전에 이런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 교류를 하다가 작년부터 지역과 함께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모여서 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은 결코 쉽지 않은 법, ‘우분투(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교의 마을살이’라는 주제를 갖고 시작한 활동은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과 함께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렵고 난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교사들이 마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다 뽑아서 재구성해 학년별로 교육과정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는 기존의 이벤트, 행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교육과정이라는 건 수업과 연계가 되는 거니까요.”

옥수수과 복숭아 프로젝트로 얻은 것들

힘든 일은 내부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마을탐방 같은 경우 마을 어르신들의 도움이 필수인 상황이었는데 어르신들의 반응이 마냥 호의적인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전화로 돌려 해봐도 ‘관심 없으니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는 얘기’가 돌아오기 일쑤. 그러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다행히 도와주겠다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있었기



●
 올 여름, 공근초등학교의
 ‘우리마을 옥수수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됐다. 아이들은
 마을어르신들에게 받은 옥수수 씨앗을
 직접 심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으면서
 그야말로 정성스럽게 옥수수를 키웠다.



때문에 교사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서 벗어나 마을로 나가 마을의 역사, 지리, 유래에 대해 공부하고 마을 생활과 키우는 작물에 대해 배워나갔다.

올 여름, 공근초등학교의 ‘우리마을 옥수수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됐다. 마을어르신들에게 옥수수를 심는 방법, 잘 재배하는 방법을 배우고 학교 한편에 아이들이 직접 옥수수밭을 만든 것. 아이들은 마을어르신들에게 받은 옥수수 씨앗을 직접 심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으면서 그야말로 정성스럽게 옥수수를 키웠다. 그렇게 몇 달을 고생한 끝에 수확한 옥수수는 양이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환호성을 지르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심고 가꾸어 거둔 농작물이 아니던가!

“옥수수 자체로는 양이 적어 수익이 얼마 안 되니까 옥수수버터귀이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수익금이 16만 7천 원이었어요. 그 돈은 2학기 때 마을어르신께 드릴 선물 구입비로 쓰려고 학교 어린이회에 전달했어요.”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농산물 재배, 기부활동, 사회적기업, 나눔 등 각 과목 교과별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을 마을어르신들과 함께 직접 실행하고 체험한 것이었다.

‘우리마을 옥수수 프로젝트’는 5학년만이 참여했지만 작년에 시행했던 ‘우리마을 행복 복숭아 프로젝트’는 전 학년이 함께한 경우였다. 공근의 복숭아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홍보하는 의미로 마을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서 복숭아를 구입하고 동시에 그걸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었다.

“1, 2학년이 마을선생님을 찾아가 복숭아꽃 피는 과정과 가지치기를 배웠어요. 복숭아를 수확하고 나면 3, 4학년은 가공활동을 통해 복숭아 에이드를 만들었고 5, 6학년은 횡성평생학습체험축제에 나가서 판매를 했죠. 총 4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 올해는 아이들이 복숭아통조림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동범 교사는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동작업해서 얻은 가치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기적 같은 변화를 얻다, 다른 미래를 꿈꾸다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은 마을과 학교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아이들이었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조손가정, 도시에서 전학 온 이혼가정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 역시 전교생의 1/4 이상이지요. 그러다보니 자신감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마을 어른들과 함께 땀 흘려서 신체활동을 하고 마을선생님이 되어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하나 더 올라간 게 느껴져요(웃음). 사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마을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며 ‘마을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마을과 어른들, 교사들의 변화 역시 컸다. 처음에는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귀찮아했던 어른들은 당신이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소개시켜주마 나서고, 온 동네에 왁자지껄 종알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간이 늘어나자 아이들 손에 음료수를 쥐어주며 “사람 사는 곳 같다”며 기뻐하기도 했다.

“이제 학교와 마을의 밀접한 관계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도시와 비슷한 양상을 띠어가던 너 따로, 나 따로였던 분위기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생기는 것들,
기대하지 않았는데 만들어진 것,
부정적인 것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긍정적으로 실현되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교사로서의 보람과 충만감이 높아졌다.

가 확 달라진 거죠. 학기 초나 말이 되면 우분투 협의체를 통해서 평가회,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우고 가르칠 수 있을 까를 고민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서동범 교사는 교사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생기는 것들, 기대하지 않았는데 만들어진 것, 부정적인 것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긍정적으로 실현되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교사로서의 보람과 충만감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여러 업무 중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을과 함께 하기 위해 발로 뛰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진정성 있게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다보면 그 결과는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 마을로 직접 나가서 몸으로 부딪쳐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진다고요.”

낮선 이들과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내내 호기심에 주변을 기웃거리던 아이들에게 슬쩍 물었다.

“옥수수 프로젝트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다 같이 하니깐 좋았어요!” “마을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가르쳐주셨어요!”

뜨거운 여름 벌레 토실토실 살이 오른 공근면의 농작물들 그리고 공근초등학교 아이들.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결실보다 아름다운 긍정이 한가득 펼쳐졌다. ㉞



임시정부의 파수꾼 '차리석 선생'을 만나다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를 맞아 독립유공자분들을 모시고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다. 이들은 대다수 생계의 문제가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였다. 각자가 사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여행길에 올랐고 종로 탑골공원을 시작으로 청와대, 효창공원을 거쳐 상해로 떠났다. 필자는 동암 차리석 선생의 아들인 차영조 선생과 함께하면서 차리석 선생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다. 그는 임시정부가 가장 힘들 때, 20년간 임시정부를 지킨 파수꾼이었다.

글. 정상규(《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의 저자)



차리석 회갑 기념



앞줄 왼쪽부터 조완구, 이동녕, 이시영
뒷줄 송병조, 김구, 조성환, 차리석

*정상규 작가는 지난 6년간 역사에 가려지고 숨겨진 위인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역사 콘텐츠로 알려왔다. 최근까지 514명의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보건 및 복지문제를 도왔으며, 오랜 시간 미 서훈(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을 받지 못한)된 유공자를 돕는 일을 맡아왔다.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1907년 차리석 선생은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대성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젊은이들에게 민족교육을 가르쳤다. 그 후 안창호, 양기탁 선생이 주도하여 조직한 비밀결사인 신민회에 가입하여 평양 지역에서 활동했으며, 신민회의 '교육으로 나라를 구한다는 교육구국', '독립군 기지 개척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군사기지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워나갔다. 당시 신민회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준비, 계획하고 있었다. 그 결과로 1911년 이상룡, 이시영 선생이 서간도로 건너가 독립군 기지를 개척하여 일본군과의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차리석 선생은 안창호 선생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안창호 선생의 철학은 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을 계몽시키자는 것이었다. 그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안창호 선생의 교육철학을 실천하던 선생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테라우치 총독 암살 시도 사건'에 연루되어 1911년 1월에 체포되어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그 후 1919년 평양에서 3·1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한 선생은 무력투쟁의 뜻을 품고 상하이로 건너갔다. 상하이에서 선생이 처음으로 찾아가는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곳에서 선생은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기자로 주 3회씩 신문을 발행했는데 만주 지역 독립군들의 활동을 자세히 알리고 임시정부의 활동 및 진행 사항에 대해 동포들과 독립운동가들에게 전함으로써 독립의 꿈과 희망을 알려주는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다. 또한 미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과의 연계를 취재 보도하여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세력들이 외롭지 않도록 독립의 열망을 북돋아 주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상해 임시정부 답사 전, 청와대에서 함께한 단체사진



독립운동의 멈추지 않는 열정

1920년대가 지나면서 독립운동사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만주 지역의 봉오동 전투, 대전자령 전투,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등이 이때 일어난다. 이 때문에 독립운동 단체들이 분산되고 임시정부가 필요 없다는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독립운동의 암흑기가 찾아온다. 이런 시기에 선생은 김구, 이시영, 조소앙, 이동휘, 조완구 선생 등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들과 교류하며 독립운동계의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 피력했다. 아래는 선생이 당시 지면을 통해 한 말이다.

“임시정부의 내일은 곧 군주제의 청산이며, 민주화의 새 출발을 기약함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전진하고 대동단결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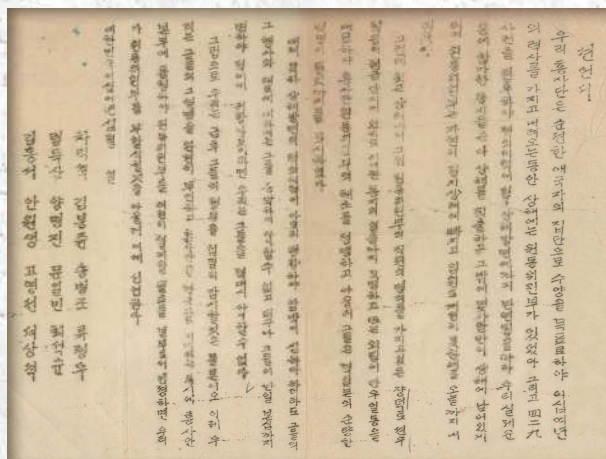
선생은 글을 발표하는 것 외에도 안창호 선생이 조직한 흥사단에 가입하여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에도 힘을 보탰다. 수시로 청년들을 모아놓고 강론회를 개최하여 여러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으며, 우리의 뿌리와 역사를 교육했다. 흥사단에서 선생은 이사로 재직하며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했다.

1922-1931년은 임시정부의 침체기였음을 고려해보면 독립운동의 암흑기에도 선생의 독립운동을 향한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던 것 같다. 이봉창, 윤봉길 선생의 의거 후 일제의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감시는 절정을 이루었고 상하이 임시정부는 항저우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 후에도 임시정부는 여러 번 옮겨가야 했는데 중국이 중일전쟁에서 불리하게 돌아가자 어쩔 수 없이 이동하게 되었다. 결국, 임시정부는 피난길을 전전궁궁하다 충칭으로 옮겨가게 되었으며, 이곳에서 임시정부 직할부대인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어 광복 전까지 군사작전을 전개하게 된다.

한국광복군 정모처 제3분처 사진(1941.3. 중국 중경)
제일 아랫줄 왼쪽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리석



흥사단 원동위원회 선언서(1940)



한국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어

이러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고 변절자와 밀정이 있었을 것이며, 서로 다른 단체들과의 연합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중국과의 외교, 임시정부 운용자금 확보 등 각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한 숨은 영웅들이 있었다.

선생도 이렇게 임시정부를 지켜온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선생은 국무위원, 중앙감찰위원장을 겸직하며 광복군의 항일전투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광복군은 서울 진공작전을 코앞에 두고 실행하지 못했다. 1945년 9월 9일, 차리석 선생은 광복을 맞은 후에도 조국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임시정부 청사에서 한 많은 세상을 등지고 눈을 감았다. 그 뒤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 장군이 이동녕 선생의 유해와 함께 선생의 유해를 모셔다가 지금의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 안장했다. 1948년 사회장을 치를 당시 이시영, 김구 선생은 차리석 선생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이제는 떠나버린 그를 추모했다.

“차리석 선생은 해외혁명 운동가 가운데 특히 강력한 정신력을 소유하시기로 유명하시었다. 탁월한 사무 처리의 기능이나 병중에서도 최후의 일각까지 맡으신 사명을 완수하신 강한 책임감은 한국 독립운동에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㉔

20년간 임시정부를 지킨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

- 광복 직후 한 달 뒤, 1945년 9월 9일 서거.
-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1995년 9월의 독립운동가.

1945년 9월 12일 차리석 발인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①

국가경쟁력 확보의 첫걸음, 교육에서 시작된다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건 자명한 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각 분야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척도는 다름 아닌 교육 분야에서 태동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은 어떻게 진화하고 무엇을 견인해 가야하는가.

글. 손찬희 소장(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새로운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다. 어린 아이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현재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얘기를 할 정도이니, 이 용어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정도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주창된 이후,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 다투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7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을 필두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왜 4차 산업혁명이 우리를 이렇게 고민하고 분주하게 만들까? 이는 바로 ‘혁명(revolution)’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와 연관이 있다. 사전적으로 혁명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급격하게 고치거나 세우는 일’을 의미한다. 결국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는 급격하고 근본적인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분야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

날 수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 확보를 견인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성공의 열쇠는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은 기술 개발 및 발달에 의한 자동화(automation)와 연결성(connectivity)의 개선과 확대라는 측면에서 1~3차 산업혁명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전 산업혁명과 비교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지능정보기술의 폭넓은 활용에 있으며, 이를 통해 한층 강화된 자동화와 연결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강화된 자동화와 연결성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는 이렇다.

우선 자동화가 가능한 직업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며, 이로 인해 단순한 기능을 요구하는 직업과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능을 요구하는 직업 사이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특히 인간에 의해서만 수행되었던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열쇠는 유연성(flexibility)이라고 본다.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 교육시스템, 사회기반시설과 법적 시스템을 가진 국가와 경제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대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교육·훈련 측면에서 해석하면 하나의 직업을 위한 전문적인 숙련도는 물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스킬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역시 유연한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 hand in a dark suit sleeve is shown from the bottom left, palm up, holding a glowing, interconnected network of blue lines and nodes. The background is dark with a faint grid pattern and a bright blue light source at the top left, creating a futuristic, digital atmosphere.

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능들이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강화된 연결성은 보다 즉각적인 글로벌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고 과거에 불가능했던 경제 공급망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열쇠는 유연성(flexibility)이라고 본다.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 교육시스템, 사회기반시설과 법적 시스템을 가진 국가와 경제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대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교육·훈련 측면에서 해석하면 하나의 직업을 위한 전문적인 숙련도는 물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스킬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역시 유연한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성공을 위한 키워드가 ‘유연성’이라고 할 때, 교육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우선 미래 준비형 교육과정의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비와 같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매우 급격하고 이에 따라 노동·직업 시장 역시

빠른 변화로 인해 하나의 스킬셋(skill set) 또는 좁은 전문성에 의존하는 개인은 미래 경제체제에서 장기간 경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미래의 모든 직업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언어적(linguistic)¹⁾, 수학적(mathematical), 기술적(technological) 문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결 또는 융합, 글로벌 시민 의식, 공감 능력,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스킬(employability skill),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프로젝트 관리 등이 미래에 개인이 갖춰야 할 역량이다. 이와 함께, 지역적, 그리고 글로벌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라 요구되는 스킬에 관한 식견과 예측에 근거하여 자신의 스킬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혼란과 시행 지연을 피하기 위한 정기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가르치는 방법에서도 경험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학습자가 학습의 소유권을 가지는 평생 학습자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전문적인 교원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테크놀로지는 물론, 4차 산업혁명이 담고 있는 인공지능 등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교실에서의 경험, 지식,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

다는 점이다. 나아가 누가(who) 또는 무엇(what)이 교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력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가르치는 주체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도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강국’이라는 비전하에 우리나라 교육이 제시하고 있는 추진 방향과 전략 역시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의 수업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지역사회,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한 다양한 학습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학사제도를 유연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수업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 확대,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 구축과 첨단 미래학교 설립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 및 교육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로 인한 인간소외,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간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교육 강화를 교육혁신을 위한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진 방향과 전략에서 담고 있는 교육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가 되는 길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다. ㉔

1) 외국어를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협업 등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다.

2) 교원 자격체제의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미래의 학습자는 교사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 또는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TIP

참고 문헌

교육부(2016).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試案)(2016.12.)
 UBS(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BS White Paper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6.
 WEF(2017). Realizing Human Potential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An Agenda for Leaders to Shape the Future of Education, Gender and Work. World Economic Forum 2017.

미래 교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미래 교육에 대해 논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미래라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예측으로부터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불확실성이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 중의 하나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경험을 현재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로 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점진적 변화라 본다면, 미래가 가지는 상상력의 수준에서 현재에서는 불가능하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허용하는 파괴적 혁신으로 나아가 보는 것이다. 두 개의 경계는 이미 허물어지면서 강의실이 없는 수업, 학교 간 통합 교육과정 운영,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시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글. 김진숙(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 교육정책본부장)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

교육의 변화는 내가 현재 가지는 역할과 위치에 따라 인식되는 것이 다르므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하나의 방향으로 말할 수 없고, 하나의 전략이 나올 수 없다. 또한 요즘처럼 미래 교육 방향과 전략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없었던 만큼, 이를 받아들이는 기준부터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기준의 하나를 제안한다면, 수많은 교육 혁신 전략 중에 “현재로도 가능한 것”, “학교 문화가 바뀌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법과 제도, 정책이 바뀌면 기꺼이 해볼 만한 것”, “지금 은 가능하지 않으나 바뀔 것으로 판단되는 것” 등으로 분류해 보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오는 것이라면, 교육의 혁신 역시, 점진적 변화를 이끈 경험이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 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교육 현안을 직면하고 있는 현장 교사에게도 중요한 합의점이 되어야 한다. 교육의 변화가 수업 방식이나 학습 환경이 변한다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변화와 혁신의 단계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긴 호흡의 교육 혁신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은 10년

미래가 가지는 속성상 언제부터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5분 후도 미래이고, 50년 후도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을 시간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미래는 언제부터가 아니라 언제까지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많은 미래사회 예측이나 미래 교육에 대한 예측 보고서가 짧게는 2025년, 길어야 2035년인 것을 보면, 사회 변화가 그만큼 가속도를 가지고 변화하게 되어 그 이상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의 상황을 인정하고, 공감을 전제로 한다고 해도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하는 주어진 시간은 10년이다. 10년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이다.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보급된 것이 2009년이고, 이후 10년의 시간 동안 세기에 걸친 가장 혁신적인 이 도구가 우리 생활에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보면, 향후 10년간의 기술 발달은 전문가도 예측을 포기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폭넓게 사회·경제·문화·정치 등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교육의 역할이 사회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체제로서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면, 적어도 10년 후의 사회에서 살아갈 인재를 과거의 방식으로 가르쳐서는 한 나라를 지탱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정책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넘어 2020년 차기 교육과정 개정 방향이 현재 논의되는 교육의 혁신 방향을 담아내지 못하면 향후 10년을 현재의 교육 현안에 매몰되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양과 더불어, 다양한 학교가, 각기 다른 학교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각기 다른 특성화된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을 목표로 10년의 교육 방향을 기획하고, 설계해야 한다.

준비를 하는 주체별로 역할의 전환을 피하자

교육 혁신에 대한 절실함이 현재 국가, 사회적으로도 인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다만, 외부의 압력과 위협이 아닌 교육 주체가 변화와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사회 변화가 어느 하나의 양상으로 짐작할 수 없듯이, 학교의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해결해야 할 현안도 학교마다 지역마다 다르다. 농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한 학급에 다문화학생이

7~80%를 차지하는 상황이, 대도시의 학교 현안과 다를 것이요, 60명 미만의 학교가 전체 교육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의 현안이, 여전히 과밀학급이 현안인 지역과 다르다면, 과감한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양이 필요하다.

다만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현재처럼 모든 것을 규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총론 수준의 교육 철학과 가치, 방향을 담은 교육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도교육청 역시,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규정짓는 교육 정책 과제 수립이 아니라, 학교마다 취사선택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으로 규정된(내려진) 과제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아니라, 현재 우리 학교가 당면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학습 환경을,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상식에 가까운, 거시적인 담론인 듯하지만, 담론에 대한 합의와 공감조차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정책 과제 수행, 이로 인한 시행착오로 10년의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는 것이 미래 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한 필자의 주장이다. ㉞



도형의 최소단위 삼각형, 그 안에서 가장 큰 꿈을 꾸다

경기도 남양주 동화고등학교

1973년 문을 연 동화고등학교는 성냥갑 같은 네모반듯한, 전형적인 학교 건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50여 년의 세월 동안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기를 들지 않았던 안정된 교육의 장소였다. 그러다가 불현듯 지난 2015년 불온의 삼각형 건물이 이곳에 끼어들었다. 처음에는 모두를 당황시켰으나 지금은 남양주를 넘어 전국의 명물이 된 동화고등학교의 삼각형 건물, 그곳에 다녀왔다.

글. 이경희 사진. 김도형



고정관념을 깨다

신생학교라면 충분히 납득이 갈만하다. 교육공간에 대한 혁신이 주요 화두가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건물을 새 학교에 짓는 것은 꽤나 타당한 일이 됐으니 말이다. 그러나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전통의 동화고등학교에 삼각형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소식은 놀라움을 넘어서 파격에 가까운 것이었다.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다른 오래된 건물 사이에서 심하게 튀거나 불쑥 솟은 못처럼 느껴질 삼각형 건물을 상상했지만 운동장에 들어서서 바라본 여러 동의 건물은 나름의 역사와 보수를 거쳐 제법 가지런히 어울린 채 사이좋게 서 있었다.

오늘 취재진을 맞아준 조종원 교감의 안내에 따라 도착한 건물 앞에서자 비로소 새 건물의 느낌이 눈에 확, 들어온다. 일자면이 운동장 쪽으로 향해 있는 바람에 삼각형이라는 형태가 잘 안보였던 탓이다. “동화고등학교는 비평준화 고교로 전교생 숫자가 1450명, 학급이 학년당 15개반, 총 45학급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규모가 큰 학교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역사가 오래되다보니 그만큼 오래된 건물도 많은데 고3이 쓰던 1950년대 건물 한 채가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으면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고 신축을 해야만 했어요.”

조종원 교감이 삼각형 건물이 들어서게 된 배경을 차분히 설명했다. 입찰을 통해서 건축설계사가 선정이 됐다. 동화고에서는 새

건물이 지어질 바로 뒤에 위치한 중학교 공간을 확보해줄 것, 고3이 쓰기 적합할 것, 운동장을 침범하지 않을 것 등등의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그리고 얼마 뒤 설계사무소에서는 건물의 도면을 그려서 가져왔다. 무려 삼각형이었다. 관리자는 물론 학교재단 관계자, 교사들까지 모두 놀랐다. 학교표준건축은 직사각형이라는 고정관념, 반듯한 교실과 통행 가능한 복도, 채광과 환기만 잘되면 충분한 학교건물에 삼각형이 웬말이냐, 하는 게 모두의 반응이었다. 운동장이 다 보이는 한쪽 벽면의 통창도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고3 교실인데 아이들이 밖을 쳐다보느라 집중력이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지극히 당연한 설왕설래도 있었다.

놀고, 소통하고, 쉬는 공간으로 모여들다

모두가 반신반의했지만 건축설계사는 입지를 생각하면 이게 최선이라고 단언했다. 사실 새 건물은 교사, 관리자, 학생들에게 많은 숙제와 부담을 지우는 공간이다. 공간에 적응을 해야 하고 세팅부터 건물관리, 청소, 학생지도, 정리정돈까지 모든 걸 다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교사들은 가장 먼저 건축가의 의도를 살폈다. 이 공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침내 송학관에 입주하던 날, 그 시

●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 정형화된 틀을 깨는 공간,
 유리창을 통해 서로를 자유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
 동화고등학교의 이 삼각형 건물은 과거를 지나 현재를 통과하고 미래를 향해 가는
 아주 뚜렷한 여정을 보여주는 '참 좋은 공간'임에 틀림 없어보였다.
 삼각형이 일으킨 새바람이 대한민국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모두가 지켜볼 일이다.



도는 하나씩 답을 얻어가기 시작했다.

이쯤 이야기가 진행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조종원 교감을 따라 아직 뽕송한 느낌이 남아있는 송학관을 둘러보기로 했다.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바로 밝음이다. 취재 당일 날씨가 흐렸음에도 벽면의 유리창과 중앙정원을 통해 들어오는 얇은 여름 빛은 건물 전체를 환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통상 복도라고 부르는 일정한 넓이의 긴 통로 역시 고정관념을 부셨다. 외삼각형과 내부 삼각형을 비틀어놓은 구조 덕분에 그 폭과 길이가 넓어지다가 좁아지는 등 자유분방하게 사방으로 뻗어 있었던 것.

건물 한가운데 자리한 중앙정원은 이 건물의 핵심이다. 자연 채광이 그대로 들어오는 중정은 말 그대로 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드는 곳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책도 읽고 명도 때리고 즐기도 한다. 정원 대신 자갈이 깔려 있을 때는 이곳에서 배드민턴을 치며 놀기도 했다. 2층과 3층이 뺨 뚫려 있는 구조 덕분에 크지 않은 건물임에도 입체감과 공간감이 엄청났다. 무엇보다 막혀 있는 느낌이 없으니 아이들은 2층에서 3층에 있는 친구를 소리쳐 부르고, 3층의 아이들은 2층의 친구들이 뭘 하는지 고개를 숙 빼서 구경을 한다. 즉석에서 약속을 잡아 중간 계단에서 만나기도 하고 삼각형 창문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수다를 떨기도 한다.

조종원 교감은 이를 두고 “이곳은 통행로이자 휴게공간, 소통공간, 재미의 공간, 놀이의 공간인 곳”이라고 미소를 지었다.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이 삼각형 건물이 안팎으로 불러일으킨 변화는 꽤나 큰 것이었다. 그것은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는 명제에 더없이 부합하는 변화이기도 했다. 동화고 고3 학생들의 표정은 일단 타학교 고3들과 비교해 밝았다. 특유의 공부에 찌든, 신경질적인 그림자가 거의 없어지고 친구들 간의 소통, 교사와의 소통이 이전 건물에 있을 때와 비교해 말할 수 없이 넉넉해지고 편안해졌다.

변화는 교사들에게도 찾아왔다. 모름지기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선이 있어야 하고, 금도가 있어야 하고,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공간이 그걸 허물어 버리니 관점까지 바뀌어 버린 것이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중정 벤치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주의를 많이 줬어요. 하지만 햇빛이 쏟아지는 곳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애들을 보면 피곤하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어느 순간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놀란 변화였지요.”

오랜 세월, 답습해온 교사로서 미처 깨닫지 못한 정형화된 틀, 편한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놀라움은 꽤나 큰 것이었다고 조종원 교감이 너털웃음을 지었다.

놀라운 현상도 일어났다. 통상 대학을 보내는 숫자가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현실에서 삼각형 건물로 입주한 뒤로 아이들의 명문대학 진학률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그게 전부 건물 덕분이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나만은 거꾸로 삼각형 건물의 영향이 전혀 없었노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다.

동화고교의 삼각형 건물의 위상은 이제 남양주를 넘어 경기도, 대한민국, 국외로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2015 대한민국 교육부 우수시설학교상, 2014 AIA 뉴욕건축가협회상, 김수근건축상 프리뷰상 등을 연달아 수상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유명 건물이 됐기 때문이다. 교육방송에서 건물과 아이들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찍어가기도 했더니 이곳을 향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 정형화된 틀을 깨는 공간, 유리창을 통해 서로를 자유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 동화고등학교의 이 삼각형 건물은 과거를 지나 현재를 통과하고 미래를 향해 가는 아주 뚜렷한 여정을 보여주는 '참 좋은 공간'임에 틀림 없어보였다. 삼각형이 일으킨 새바람이 대한민국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모두가 지켜볼 일이다. ㉔



〈그 쌤의 이중생활〉은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선생님, 밤에는 래퍼 '달지'로 맹활약하는
이현지 교사의 이중생활을 엿보세요. ▶



쓰임 많은 재능, 랩으로 통했다!

빛가온초등학교 이현지 교사

취향이 명확한 사람은 분명 매력적이다. 이는 자신에 대한 이해, 몰두할 수 있는 에너지, 한 분야에 대한 자신감과도 등치되는 까닭이다. 빛가온초등학교 이현지 교사의 이중생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낮에는 선생님, 해가 지면 래퍼 '달지'. 음악에 교사로서의 진심을 담고, 그 음악으로 교실에 유쾌한 리듬을 덧입히는 그의 이야기다.

글. 정은주

Teacher

&



랩도 잘하는 선생님, 편견을 지우다

“취미가 뭐가요?” 쉽게 하기도, 자주 듣기도 하는 질문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진데, 적잖은 사람들이 대답에 앞서 “내 취미가 뭐지?” 자문을 할 터다. 취미, 취향... 요즘은 이런 요소들이 곧 인격을 대변한다. 그러니 마음이 이끌리는 것, 삶을 티끌만큼이라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일단 파고들어야 한다. 이현지 교사처럼 말이다.

그는 래퍼다. '달지'라는 랩 네임도 있다. 심지어 유명하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차츰차츰 늘더니 최근에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대학교 때 취미로 힙합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게 발단이 되어 교사가 된 이후에도 꾸준히 음악활동을 잇고 있는 것. 유명 곡의 커버 영상을 올리기도, 자신만의 앨범을 내기도, 이따금씩 홍대에 출몰해 버스킹도 한다. 물론 랩은 취미, 본업은 교사다. 교사라는 직업도, 힙합이라는 장르도 아직은 편견이 짙은 편. 처음에는 가우뚱하는 반응들이 있었지만, 그는 영리하게 둘의 교차점을 만들어 냈다.



Rapper



Rapper



●
 선생님들도 매년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존재라고 믿어요. 제 도전이 아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존중하고, 내 행복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또 보여주고 싶어요.

“교사라는 직업에 썩워진 편견을 부수는 일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교사를 교실에만 가두는, 세상과 동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좁은 시선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삶을 더 행복하게 가꿀 줄 아는 교사가 교실에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건 분명하니까요.”

그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랩에 담는 방법을 택했다. 음악의 힘은 생각보다 거대해, 때로는 백 마디 말보다 강력한 토닥임이 되기도 하는 터. 문학성 짙은 가사를 읊조리다 보면 가슴 뭉클해지는 순간이 분명 온다. 순도 높은 진심이 닿았던 걸까.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제안으로 학생들과 함께 자작곡 〈다시 만날 때〉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다른 교사·학생들과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선생님이 된 후 아이들 목소리를 담은 곡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당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많이 고민했는데요. 신규 발령 났던 해를 떠올리며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그 웃음 그대로 다시 만나자’는 내용을 담았어요. 이후 음악

을 듣고 울었다는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음악으로 타인의 감정을 움직인 황홀한 경험이었어요.”

놀고, 배우고, 성장하다, 유튜브에서

요즘 세대들이 가장 즐겨 보는 매체 중 하나가 유튜브다.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의견이 아직 팽팽하게 맞서지만, 긍정적인 쪽으로 차츰 기울어 가는 추세. 이현지 교사는 양질의 콘텐츠가 늘어나고 권장된다면 다양한 순기능이 가능해질 거라 이야기한다. 꼭 교육적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교사의 자기계발이나 학생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 실제로 그의 반 아이들은 선생님이 유튜버인 걸 무척 자랑스러워한다. 최근 첫 정규앨범 〈Handed The Moon〉을 발표해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재미있는 건 피처링부터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앨범 제작에 현직 동료 교사들의 참여가 있었다는 거다.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대학 시절부터 함께 활동하던 친구들도 있고, 여러

Teacher

재능 있는 선생님들을 새로 만나기도 했죠. 정말 재미있는 작업이었어요. 비슷한 공감대와 이야기들을 예술에 함께 담아내면서 교직에 대한 이야기나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어요. 덕분에 교사로서도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느껴요.”

이쯤 되면 그 의기투합의 결과물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 곡들이 교사로서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앨범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된 느낌. 자신만의 음악을 담아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일상의 고민을 가사에 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타이틀곡 〈새벽옥상〉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지친 하루를 보낸 친구들이나 저 자신에게, 시원한 밤공기를 쐬 후 한결 개운해지는 그런 감성을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음악을 통해 위로받거나 힘을 내는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저도 그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 바로 지금

알고 보면 꽤 빠듯한 교사로서의 일과, 그 와중에 음악 활동과 유튜브 채널 운영을 병행한다는 건 스스로에게도 큰 도전이다. 웬만한 의지가 아니고서야, 웬만큼 좋아하지 않고서야 애당초 흐지부지 돼버렸을 테다.

“사실 저는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림을 잘 그리거나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 본인의 삶을 예술에 담아내고 소통하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마냥 부러워만 하지 않고, 조그만 도전이라도 시도한 과거의 저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야만 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지금은 알게 되었거든요.”

그의 말대로 재능은 둘째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일과 취미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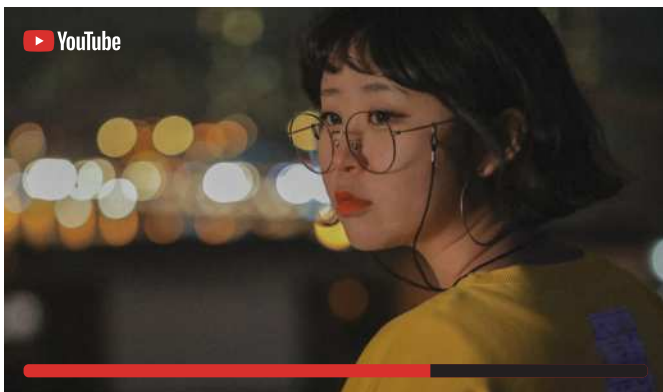
공평하게 잘하기 위해 24시간을 한 토막도 허투루 흘리지 않아야 함은 필수다. 이현지 교사는 여가 대신 취미생활을 택함으로써 유한한 시간의 균형을 유지한다. 사실 효율로 따지자면 오히려 시간을 버는 셈. 유튜브에 랩 영상을 올리고 곡 작업을 하는 ‘래퍼 달지’의 취미활동이 ‘교사 이현지’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까닭이다. 반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자기계발 하는 선생님, 좋아하는 무언가를 즐길 줄 아는 선생님의 모습은 그 자체로 특별한 교육이 된다.

“선생님들도 매년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존재라고 믿어요. 제 도전이 아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꼭 멋지게 성공하거나 대단한 결과를 위해 애써야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존중하고, 내 행복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또 보여주고 싶어요.”

그가 유년기에 만난 선생님들이 그러했듯, ‘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이현지 교사의 고민은 이토록 진지하고 심오하다. 자신의 작은 행동들이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갈지를 알기 때문이다.

“단호하고 엄하지만 항상 저희를 대하는 진심이 느껴졌던 선생님, 또 항상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학교생활을 채워주셨던 선생님 등 유년기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그 때의 기억들이 제 고민에 현명한 답이 되어주곤 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를 고민할 때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사소한 듯 보여도 모든 순간은 유의미하다. 현재는 점점이 모여 내딛을 길을 잇는 터. 결국 모든 순간은 과정이자 결과다. ‘머무르지 않겠다’, 이현지 교사가 매 순간 마음을 되새기는 이유다. ㊦



진짜 괜찮은 나를 찾아라!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행위다. 이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인생의 비극은 우리가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란 말은 옳다. 자기계발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스스로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나답게 사는 것을 나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글. 강일수(두디스 코칭 대표)



“너 자신이 돼라! 다른 사람은 이미 있으니까.”

아일랜드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의 조언이다. 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비범한 인물들은 남과 다른 점을 알아차리고 그 점을 활용한다. 그들은 자기가 추구하려는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효과적인 답을 찾아 대응한다.

중요한 일은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는 것

남의 강점은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강점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우화 작가 라 폰텐은 “온 세상을 다 알아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고 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스페인의 한 신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눈에 띄는 은총인 최대 강점을 찾아내는 것보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없다”고 했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을 더욱 강화하는 일은 자신을 더욱 자기답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더욱 자기다워질 때 남에게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기관찰을 통한 정직한 자기 평가와 인식의 시간이 필요하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나 긍정적 피드백을 귀담아 들어 보는 것이 좋다. 《강점 혁명》의 저자 마커스 버킹엄이 권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재능의 원천을 보여주는 가장 유력한 수단은 자발적인 반응에 있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자신이 맨 처음 나타낸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둘째는, 동경이다. 어떤 대상을 동경한다는 것은 어떤 끌림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이므로, 재능을 발견하려면 내면의 이런 외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는, 학습속도와 만족감이다. 학습속도가 유난히 빠른 분야를 보면 재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강점은 성과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1945년경 피터 드러커는 근대유럽의 초기 역사 특히 15~16세기의 역사를 3년에 걸쳐 연구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연구를 통해 근대 유럽에 지배적인 세력을 지닌 두 개의 조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는 가톨릭이 지배하는 남부 유럽의 예수회였고 다른 하나는 프로테스탄트가 지배하는 북부 유럽의 칼뱅파 교회였다.

1536년에 독자적으로 창설된 두 교단은 공교롭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둘 다 아주 초창기부터 똑같은 학습원리를 채택하고 있었다. 예수회 신부나 칼뱅파 목사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자신이 예상하는 결과를 기록해두었다. 그리고 9개월 후에는 실제 결과와 자신이 예상했던 결과를 비교해보는 ‘피드백 활동’을 했다. 그것은 그들이 잘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신속하게 알려준다.

또한 무엇을 배워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소질이 전혀 없는 분야가 무엇이고 잘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준다.

한 단계 성장을 위한 피드백 활동

자신의 장점을 안다는 것, 그 자신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 바로 지속적 학습의 관건이다. 이러한 피드백 활동은 강점을 찾고 강화시키는 효과적인 자기계발 방법이다. 일정기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점검하고, 예상 밖의 성과에서 자신의 강점을 찾아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과감히 목표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다. 그리고 다른 강점에 집중하거나 또 다른 강점을 찾는다. 피터 드러커는 이러한 방법을 50여 년 동안 실천하면서 자신의 목표들을 이룰 수 있었고 끊임없이 자신의 강점을 찾아 성장시킬 수 있었다. 사과 열매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듯이 강점은 성과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㉔

중2 교사면서 중2 자녀를 둔

엄마를 위한 자녀교육 노하우

우리들은 항상 타인의 문제는 더 잘 분석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일은 아주 미흡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가족의 문제 중 자녀와 엮인 일에 대해서는 애착에 대한 절대적 감성이 생겨나서인지 곧잘 오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럴 때면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자책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다. 혹 주변에서 “당신은 문제가 있어”라며 압박해도 그들 역시 가족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속수무책일 수 있으니,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당당할 필요가 있다.

글. 김동철(심리학 박사)



엄마는 걱정을 말라! 엄마니까 그런 것이다!

부모, 특히 엄마의 경우 이론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는 크지만, 엄마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그러하듯 나의 아이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며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 감성에 휘말리게 된다. 마치 분신 같은 동질성이 형성되기도 하여, 때론 친구처럼 때론 자신과 혼연일체가 되어 자녀의 성취가 곧 나의 성취로 하나 된 희열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것이 내가 낳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며, 엄마만이 느낄 수 있는 살붙이이기 때문이다. 열 달을 서로에게 교감하며, 같은 몸에 심장이 두 개로 뿔 때 느끼는 감각적 신호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엄마만이 느끼는 공감일 것이다. 그러나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 나의 아이는 스스로 제일 잘 알고 있으니.... 본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엮힌 데 뿔친 격? 중2 교사면서 중2 자녀를 둔 엄마의 마음!

그럼에도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엄마와 사뭇 다른 또래 환경에 맞는 주체적인 자아성을 갖출 때 엄마는 놀라게 된다. 이 시기가 바로 사춘기의 시작인 셈이다. 엄마는 사춘기에 돌입한 자녀를 마주할 때면 으레 긴장되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어설피며 정제되지 않은 말주변으로 자녀를 대하게 된다. 간혹 호통을 치며 고집을 부리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유치함에 놀라면서 자녀와 함께 사춘기를 겪게 된다. 이것 또한 엄마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엄마가 느끼는 사춘기 훈육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저명한 학자들의 이론과 최상의 포용력을 가진 엄마의 합작품으로 버무려 '이정도 쯤이야'라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작 실천하기까지는 현실적인 괴리가 존재한다. 이론서로 배운 대로만 실천되고 자녀 역시 공식적인 해답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세트가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더군다나 본인 자신이 가장 무섭다는 중2 사춘기 학생을 맡고 있는 교사라면 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 글의 주제와 같이 힘든 사춘기의 최상격의 수식어인 '중2병' 그것도 내 자녀와 함께 나의 반 아이들을 함께 케어한다는 것은 그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진다. 그러나 이것 또한 중2 학생과 중2 자녀를 아우르는 성장하는 교사 엄마의 모습이다.

중2인 자녀를 둔 중2 교사, 자녀 교육을 분리하여 케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처지라면 누구든 그 상황을 뚝 부러지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중2라는 나의 자녀와 중2 학생을 교육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아무리 분리하여 자신의 자녀와 학생을 교육시킨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비교 평가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는 우월한 아이와 열등한 아이가 동시에 존재하며, 그들을 위해 교육자로서 명확한 판단과 자신의 의지, 교육철학을 가지고 본인이 맡은 역할을 발휘하며 지도한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 설령 다소 열등하다 하더라도 우월했으면 하는 기대 심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평가의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가령, 교사 엄마가 지도하는 학생이 자녀에 비해 훨씬 우등하다고 생각되면 교사 엄마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자녀에 대한 배신으로 더욱 비참해지는 심리를 겪게 되며, 스스로가 자녀에 대하여 불안하다고 판단하여 자녀를 우등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압박하여 자녀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또래 아이들은 발달과정, 배우는 교과 과정, 하물며 그들이 공유하는 또래 문화의 정보까지 같기 때문에 자신이 교사 엄마가 지도하는 그룹이 아닌 청소년의 큰 틀 속에서 자녀의 위치를 명확히 보며 평가해야 한다. 자칫 본인이 지도하는 우등학생들의 일부만 보고 자신의 자녀를 상대평가 한다면 스스로는 물론 자녀에게 까지도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자녀 교육 해결하기!

가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유전적 복합체이다. 자녀를 큰 틀에서 믿고, 교사 엄마의 터널시아를 벗어 던져야 한다. 우월한 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면 나의 자녀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것은 누구나 그러하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넘기고, 현재 중2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이라면 자녀의 문제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자녀 역시 이러한 상황에 놓인 교사 엄마가 자신의 또래와 함께 비슷한 상황을 공유한다고 느낀다면 오히려 서로에게 동질감을 가질 수 있으며, 믿고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엄마와 함께 가는 교과 과정 그리고 그들의 걱정과 미래를 서로가 교감한다면 이 얼마나 행운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시간을
거스르는 열정,
나이를 뛰어넘는 의지



삶에 대한 순응은 어쩌면 도전보다 더 편한 것이다.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삶이란 얼마나 수월한 것인가. 그러나 올해로 84세가 된 보디빌더 서영갑 회원(한국교직원공제회 특별회원)은 나이에 대한 순응 대신 도전을 선택했다. 교직자로서 오래도록 정석대로 짜여진 길을 성실히 걸어온 그. 그러나 지금의 서영갑 회원은 지금껏 누구도 걷지 않은 길을 걸음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청년'이었다. 글. 이경희 사진. 김도형

국내 최고령 보디빌더 _____ 서영갑

B O D Y - B U I L D E R

교육자에서 보디빌더로

얼굴에 함박웃음이 한 가득이다. 맞잡은 두 손에서는 파르라니 힘이 느껴지고 그가 뽐어내는 기분 좋은 에너지는 마주한 이에게까지 절로 힘을 실어준다. 80세가 넘는 고령에 민소매 차림으로 손님을 맞는다면 흔히 '주책'이라고 표현될 법한 대한민국 사회. 그러나 보디빌더 서영갑 회원에게는 파티장의 연회복처럼 더없이 잘 어울리는 옷차림이다. 그런 남편과 함께 먼 길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과일이며 몸에 좋은 매실차를 내놓는 아내의 환대도 예사롭고 느긋하기만 하다. 서영갑 회원은 대구 토박이다.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대구에서 영어 교사로 교편을 잡고 교장으로 은퇴를 한, 말 그대로 대구 공교육의 산 역사가 다름없는 인물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의 대구시의 교육열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자식을 좋은 대학을 보내야겠다는 학부모들의 열의, 선생들의 욕심이 정말 대단했지요. 경북고, 경북여고, 달성고 등을 거치면서 주요 교과과목 선생으로 당연히 새벽부터 밤까지 바쁠 수밖에 없었어요.”

1999년 8월에 교장으로 40년 교직 생활을 은퇴할 때까지 그는 유독 고3 담임을 많이 맡았었다. 고3 담임 생활이 어떤 것인지 겪어본 교사들은 알 것이다. 그의 건강이 악화된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었다.

“아침 보충수업부터 야간자율학습까지 집에 가면 새벽 1시가 넘는 생활이 반복됐어요. 당시는 키도 크지 않고 몸도 왜소했는데 덩치가 산만 한 고3 애들을 감당하기도 역부족이었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허리와 무릎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병원 갈 시간을 내기도 불가능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몸이 덜 아플 수 있을까 책을 보면서 연구한 끝에 그는 아령을 하나 샀다. 대화 도중에 그가 불쑥 일어나 가지고 온 3kg짜리 아령은 그야말로 수십 년 그의 손때가 묻은, 황학동 시장에서나 볼 법한 유물 같은 아령이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서영갑 회원은 틈만 나면 아령을 든 채 팔을 굽혔다 폈다,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운동을 했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덜 아프기 시작했고 그는 40대 중반부터 퇴직할 때까지 아령 운동만으로 힘든 시간을 버텼다.





달라진 몸, 더 많이 달라진 삶

누구에게나 그렇듯 정년퇴직은 설렘보다는 걱정을 더 크게 안겨주는 삶의 터닝포인트다. 은퇴 세대, 실버 세대를 위한 강좌와 행사가 끊임없이 열리는 것도 고령화 시대에 따른 수요와 고민이 넘쳐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서영갑 회원은 퇴직할 때부터 자신의 꿈을 아주 명확하게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퇴직하기 몇 년 전에 우연히 미스터대구 선발대회 포스터를 봤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혼자 몰래 경기가 열리는 실내 체육관에 찾아가 구경을 했어요. 앞쪽에 앉아서 조명과 땀으로 번들거리는 선수들의 근육과 핏줄이 꿈틀대는 모습을 보며 살아있는 조각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을 하면 꼭 저길 해봐야겠다고 결심을 했지요.”

제자들과 교사들, 가족들의 아쉬움과 응원 속에서 정년퇴임을 한 그는 곧바로 체육관에 달려갔다. 그리고 두 달 뒤에 열릴 보디빌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포즈를 배우고 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가 대회에 나간다고 했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 은퇴한 양반이 손바닥만 한 팬티만 입고 무대 위에 설 거냐며 질책하던 아내의 반대도 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대회에서 1등을 하던 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회에 공헌하는 일꾼으로 키워낸 보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컸지만 운동으로 확, 달라진 제2막의 삶이 주는 행복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최고령, 최다입상, 최다출진 기록을 경신하는 보디빌더를 찾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그는 방송과 인터뷰, 강의를 통해 근육을 얻음으로써 달라진 삶을 이야기했고 도전하는 자의 성취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이가 들면 노화가 당연한 거

●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고 노년의 건강에는 근육이 필수입니다. 아픈 몸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건 삶이 아니잖아요.



라고, 무릎과 허리가 아픈 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동시에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때의 희열은 정말이지 컸다고. 1년에 나가는 보디빌딩 대회만 10여 차례. 국내 최고령 보디빌더로서 그가 갖는 의미는 이제 섬세하게 조각나고 부푼 근육의 사이즈 그 이상이다. 날고 기는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에 꾸준히 초대를 받는 것도 운동을 함으로써 몸과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의 삶을 모범적 지표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근육은 나이가 없다

서영갑 회원의 일상은 의외로 평범하고 간소하다. 멋진 보디빌더의 우람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 파우더나 영양제, 닭가슴살만을 먹고 체육관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짐작을 훌쩍 뛰어넘는 삶이다.

“저는 생활 속의 운동, 운동 속의 생활을 실천합니다. 외출할 일이 있으면 차를 타는 대신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걸어요. 지하철 탈 일이 있으면 내내 서서 갑니다. 웨이트는 지하실에 마련해놓은 운동기구로 하고 있고요. 운동을 시작한 지 20년이 됐지만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입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제 몸을 알기 때문이지요. 웨이트에서 과욕은 금물이고 욕심을 부리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디빌더 대회 우승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이 목표예요. 대회는 제가 운동을 즐기는 과정일 뿐이에요.”

40년이 넘는 생활동안 교육자로, 다시 또 보디빌더로 살아온 그에게는 마지막 남은 꿈이 하나 있다. 바로 현역 보디빌더로서 끝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 목표를 위해 그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소박하고 건강한 식사를 챙기고 덤벨을 들며 모래주머니를 찬다. 그리고 신문과 책을 꼼꼼히 읽으며 뇌를 운동시키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의 핸드폰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다. “근육은 나이가 없다! 서영갑입니다!” ㉞

거친
자연환경을 극복한



N O R W

북유럽의
문화 중심지





A Y



필자는 지난 6월에 북유럽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다녀왔다. 네 나라가 모두 나름대로 독특한 개성을 지닌 훌륭한 여행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독 한 나라에서의 잔상들이 더욱 짙어져만 가는데, 바로 노르웨이다. 아름답고 웅대한 자연미가 세계적으로 이름난 유물 못지 않은 감동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는 겨울이 길고 눈이 오는 날도 많은 편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은 주로 한여름에 노르웨이를 많이 찾는다. 글_사진_송일봉(여행작가)

*송일봉 작가는 (사)한국여행작가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해외여행전문지 '코리안 트레블러' 편집부장과 대한항공 기내지 '모닝캡' 편집장을 지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기획위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국립공원 대표경관 100경' 선정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문화답사 프로그램 '송일봉의 감성여행'을 24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KBS, MBC, 교통방송 등에 출연하고 있다.



북유럽 여행의 관문은 핀란드 헬싱키다. 헬싱키에서 하루 정도의 일정을 마친 여행자들은 유람선인 실자라인을 타고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향한다. 헬싱키에서 오후 5시에 출발한 실자라인은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스톡홀름에 도착한다. 역시 스톡홀름에서 짧은 일정을 마친 여행자들은 두근거리리는 마음을 애써 억누른 채 노르웨이 오슬로로 향한다.

일정에 따라 항공기, 기차, 버스 등을 이용한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적, 체력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편이다. 노르웨이는 국토의 약 3분의 1이 북극권에 속해 있을 정도로 지형이 거칠다. 험준한 산과 빙하, 피오르드는 노르웨이의 자연을 대변하는 단어 들이다. 하지만 자연적인 악조건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노르웨이 사람들은 대체로 낙천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성격은 거친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의 역사는 거의 1000년에 가깝다. 1050년에 노르웨이 바이킹의 마지막 왕이었던 하랄 하르드르데가 도시의 기반을 다진 것이 그 시초다.

그 후 1299년에 정식 수도가 되어 발전하다 한때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4세(1577~1648년)의 이름을 따 도시 이름이 크리스티아니아로 불리기도 했다. '오슬로'라는 이름은 1925년 1월 1일부터 불리기 시작했다. 도시의 이름이 바뀌면서 오랫동안 지속된 덴마크의 지배도 종지부를 찍었다.



에케베르그 언덕에서 바라본 오슬로 전경

북유럽의 문화중심지, 오슬로

오슬로를 찾은 여행자들은 대략 3개 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을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일정으로 돌아보게 된다. 그 3개 지역이란 카를 요한 거리~항구 구간, 뷔그되이의 박물관 지구, 오슬로 외곽의 프롱네르 공원 지구 등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짧은 시간에 오슬로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보행자도로, 시청사, 대성당 등이 밀집되어 있는 카를 요한 거리다.

‘북유럽 제1의 문화 중심지’를 표방하는 오슬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미술관은 뭉크 미술관이다. 노르웨이 화가 뭉크가 생전에 기증한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 곳이다. 오슬로 시내 중심가에 있는 국립미술관에는 자연, 전원풍경, 인물 등을 그린 노르웨이 예술가들의 작품을 비롯해 피카소, 마티스, 세잔 등과 같은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15~16세기의 성화상, 로댕과 마

홀의 조각품 등이 볼만하다. 뭉크의 작품인 ‘절규’와 ‘마돈나’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오슬로 곳곳에는 세계적 수준의 문화명소들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오슬로 외곽에 있는 프롱네르 공원(일명 비겔란 조각공원)은 가볍게 산책을 하며 훌륭한 조각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인기가 많다. 프롱네르 공원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조각품들 대부분은 조각가 구스타프 비겔란이 기증한 작품들이다. 작품의 소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남녀, 노인, 청년, 어린이 등과 같은 인물상이 주를 이룬다. 인물의 형상 외에도 심리상태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프롱네르 공원의 얼굴이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거대한 모노리트(하나로 된 돌기둥)다. 121명의 남녀노소가 뒤엉킨 채 나선형으로 조각되어 있는 17m 높이의 이 돌기둥은 오슬로가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명물이기도 하다.

오슬로 여행 중심지인 카를 요한 거리



오슬로 시청사 로비에 걸려있는 대형 유화(일부)





몽크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마돈나'



몽크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절규'

난공불락의 방어시설, 아케르스후스 요새

오슬로 항 근처에는 오슬로의 상징물인 시청사가 세워져 있다. 마치 우리나라의 쌍둥이 빌딩을 연상케 하는 이 건축물은 1931년에 공사를 시작해 오슬로 시 창립 900주년이 되던 해인 1950년에 완공되었다. 시청사 안에는 많은 그림과 벽화, 조각품들이 있어 관광명소로도 유명하다. 눈길을 끄는 작품으로는 로비의 한 면을 차지하는 대형 유화(24m×12.6m)다. 그림 속에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상이 담겨 있다. 오슬로 시청사에서는 해마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을 거행하고 있다. 2000년 12월 10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열렸다.

에케베르그 언덕과 아케르스후스 요새는 오슬로를 떠나기 전에 가볍게 들르면 좋은 명소다. 에케베르그 언덕은 몽크가 그의 대표작 '절규'를 그리기 전에 강한 영감을 얻은 장소다. 하지만 에케베르그 언덕에서는 '절규'가 상징하는 이미지인 '공포'와는 달리 평온한 오슬로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오슬로 항 근처에 있는 아케르스후스 요새는 스웨덴의 잦은 침략을 막기 위해 구축한 난공불락의 방어시설이다. 최초의 공사는 호콘 5세(1270~1319년) 때인 1299년에 시작되었다. 르네상스 양식의 외관은 크리스티안 4세 때인 17세기에 개축한 것이다. 아케르스후스 요새에서는 가벼운 산책을 하며 멋진 석양을 감상할 수 있다.

프롬네르 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품인 '모노리트'



노르웨이 피오르드의 심장, 플롬

오슬로에서 북서쪽으로 370km쯤 떨어져 있는 플롬은 피오르드 연안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노르웨이 피오르드의 심장'이라 부르고 있는 곳이다. 피오르드는 노르웨이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자 명물이다. 노르웨이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자연의 결정체 피오르드. 그리고 피오르드 여행의 가장 아름다운 출발지인 플롬. 이 마을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데는 '철도의 최고 걸작품'이라는 찬사를 받는 플롬 철도의 영향이 매우 크다. 노르웨이 특유의 아름답고 웅대한 자연미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플롬 철도여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여행' 가운데 하나로 손꼽혀 왔다. 플롬 철도는 오슬로 - 베르겐 노선과 연결된 지선이다. 오슬로에서 베르겐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4시간 30분쯤 가면 환승역인 뮌달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플롬 철도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 플롬 철도의 총 길이는 20km로 1923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1940년에 개통되었다. 승객 수송은 이듬해인 1941년부터 시작되었다. 해발 866.8m 지점의 뮌달역부터 해발 2m 지점의 플롬역까지는 구불구불한 내리막길로 이뤄져있다.

약 1시간이 소요되는 이 노선에서 여행자들은 노르웨이의 웅장한 산악미와 자연미에 흠뻑 빠지게 된다. 뮌달역을 출발한 기차는 잠시 후 키오스포센역에 5분간 정차한다. 탑승객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밖으로 나가 거대한 물줄기를 자랑하는 호스 폭포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다. 폭포 중간쯤에서는 빨간색 옷을 입은 요정이 나와 1~2분가량 춤을 춘다. 노르웨이 신화에 등장하는 요정인 '홀드라(Huldra)'를 재현하는 것이다. 플롬 철도 구간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마을은 오래된 교회가 있는 하레이나 마을이다.



▲ 노르웨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인 '루핀'
▼ 아케르스후스 요새 내부의 산책로

개울이 흐르는 협곡 한쪽에 10여 채의 작은 주택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고, 개울에는 작은 다리가 놓여 있다. 급경사의 산허리와 여러 개의 터널을 지난 기차가 종착역인 플롬역에 이를 무렵, 여행자들의 눈앞에는 예쁜 호수를 연상케 하는 피오르드의 끝자락과 아담한 마을풍경이 펼쳐진다. 선착장에는 기차를 타고 온 사람들을 태우고 떠날 유람선들이 정박해 있다. 플롬을 출발한 유람선이 느리게 항해를 하는 동안 여행자들은 유람선 양쪽에 펼쳐지는 웅장한 노르웨이 피오르드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구드방겐과 플롬 사이에 있는 피오르드





플뢰엔 산에서 내려다본 베르겐 전경

피오르드 여행의 목적지인 구드방겐까지는 약 2시간이 소요된다. 구드방겐에서 다음 여행지인 베르겐까지는 버스로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음악가 그리그의 고향, 베르겐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도시는 수도인 오슬로다. 하지만 보다 낭만적인 여행지를 즐겨 찾는 사람이라면 노르웨이 제2의 도시인 베르겐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 큰 도시는 아니지만 작곡가 그리그의 고향으로 상당한 매력을 지닌 도시이기 때문이다. 베르겐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는 브뤼겐 거리다.

늘 많은 여행자들로 붐비는 이 거리에는 14~15세기 무렵 한자동맹* 당시 독일 상인들이 거주했던 흔적이 지금까지도 잘 남아 있다. 파스텔톤의 외벽과 빈틈없이 다닥다닥 붙은 뾰족지붕으로 특징되는 목조 가옥들. 마치 장난감처럼 알록달록한 이 독일풍 가옥들은 현재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베르겐 시내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산은 해발 320m의 플뢰엔 산이다. 이 산 정상까지는 자그마한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

날씨가 좋은 날 플뢰엔 산에 오르면 동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베르겐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플뢰엔 산 정상에서 베

르겐 시내로 내려올 때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트레킹 코스를 걸으면 좋다. 울창한 숲길 곳곳에 '마녀 출입금지', '마녀 촬영금지' 등과 같이 재미난 안내판들이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숲길을 걷고 있노라면 저절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베르겐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낭만적인 도시다. 어쩌면 음악가 그리그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1843년 베르겐에서 태어난 그리그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음악가의 길을 걸었다. 입센의 극시인 페르퀸트에다 곡을 붙인 '페르퀸트 모음곡'이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1876년 초연된 페르퀸트는 그리그로 하여금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만들었다. 그리그는 베르겐 교외의 바닷가 언덕에 예쁜 집을 짓고 살면서 많은 음악들을 만들었다. 노르웨이의 아름답고 다양한 자연과 삶, 전설 등을 끊임없이 악보로 옮겼다. 음악을 만들다 지치면 아내 니나와 함께 집 근처의 호숫한 산책로를 걸으며 악상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리그가 22년 동안 살았던 아담한 집은 현재 관광객들에게 자유롭게 개방되고 있다. 근처에는 그리그 박물관이 있으며 조그만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는 그가 생전에 '솔베이그의 노래'를 작곡했다고 전해지는 빨간색 오두막이 있다. ㉞

TIP

자유여행자들을 위한 교통패스, Norway in a Nutshell

노르웨이 여행에서 여행자들이 겪는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이동수단이다. 자연지형이 워낙 험한 데다 기후 또한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험한 산악지형과 피오르드는 버스의 이동을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어 다른 나라처럼 버스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여행을 즐길 수 없다. 게다가 5월 이전에는 높은 산의 경우 버스통행이 불가능한 곳도 많아 자칫 잘못하면 길에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 가족단위의 자유여행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여행 프로그램이 바로 Norway in a Nutshell이다.

Norway in a Nutshell의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일정은 다음과 같다. 오슬로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뤼르달역에 도착한 여행자들은 플룸으로 가기 위해 플룸 철도로 갈아탄다. 이 기차는 경치가 좋은 곳에서는 서행을 하거나 정차를 해서 여행자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도 준다. 플룸에 도착해서는 유람선을 타기까지 약간의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여행자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점심식사를 한다. 플룸에서의 자유 시간을 마친 여행자들은 유람선을 타고 구드방겐으로 향하면서 약 2시간에 걸쳐 '노르웨이 피오르드'의 진수를 감상한다. 구드방겐에서 다음 도착지인 보스까지의 이동수단은 버스다. 이 버스는 중간 경유지인 스탈하임에서 잠시 정차하는데 이곳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보스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베르겐으로 향한다. 베르겐에 도착한 후에는 여행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베르겐에서 숙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오후 늦게 출발하는 야간열차를 이용해 오슬로까지 갈 수도 있다. Norway in a Nutshell을 이용하려면 오슬로 중앙역에서 예약과 발권을 해야 한다. 유레일패스를 가지고 있을 경우 오슬로-뤼르달 구간과 보스-베르겐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구간은 할인받을 수 있다.

*한자동맹 : 독일 북부의 도시들과 외국에 있는 독일의 상업집단이 상호교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결성한 동맹

세상에서
| 제일 예쁜 내 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엄마



박가령 부산 금정고 교사 & 딸 최울겸 모녀의 첫 강화도 여행



딸은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 엄마는 딸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본다. '모녀 여행'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하지만 박 가령 교사와 딸 율겸 씨에게 이번 강화도 여행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하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다시금 애정을 확인하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는 엄마와 딸. 그 정답고 어여쁜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다.

글. 이경희 사진. 권대홍

모녀의 첫 강화도 여행

핏줄로 연결된 가족들을 꼽자면 열 손가락이 모자란다. 엄마, 아빠,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 사촌 형제들. 그러나 박 가령 교사와 딸 율겸 씨는 이번 여행만큼은 오로지 서로에게만 집중해보기로 했다. 들끓는 사춘기를 통과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되어 가면서 그간 쌓아온 정을 한껏 느끼고 가겠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박가령 교사는 <The-K 매거진>에 보낸 사연을 통해 “딸에게 빛을 졌다”라는 문장으로 율겸 씨에 대한 남다른 마음을 살짝 보여주기도 했다.

무뎠기로 손에 꼽혔던 8월 둘째 주, 본격적인 강화도 여행은 처음이라는 모녀가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반가움에 두 손을 꼬옥 마주 잡는다. 한 사람은 서울, 한 사람은 경남 양산시에 터를 잡고 있는 만큼 평소 자주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이 터져 나온 것이다. 유독 파랗고 높은 하늘을 머리에 이고 달리고 달려 도착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 강화도!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은 화문석 체험장이다. '강화도'하면 화문석이라는 단어가 절로 따라올 만큼 익숙한 강화도 화문석을 직접 만들어볼 기회를 어찌 놓칠 수 있을까? 강화도령 화문석공방에 들어서자 안마당에 좌악 펼쳐진 왕골들이 보인다. 먼저 화문석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윤환 대표가 화문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강화도 화문석은 꽃 모양의 자리라는 뜻으로 100년이 넘는 전통방식으로 짜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 중국 사신이 쓴 <고려도경>을 보면 강화도 화문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고려인이 자리를 잘 짠다, 자리가 아름답고 부드럽고 최고로 우수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대목이 나올 정도로 명성을 얻고 있었지요.”

박가령 교사가 눈을 반짝거리며 쉬지 않고 질문을 던진다. “자리용과 공예품용 왕골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상품의 기준은 무엇인가?” 평소 엄마의 지적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익히 알고 있는 율겸 씨가 미소 띤 얼굴로 열심인 엄마를 바라본다.



강화의 전통과 정취를 만나다

오늘 두 사람이 만들어 보기로 한 것은 미니 밭이다. 방문 입구에 달아놓으면 예쁘게 달랑거리는 미니 화문석 재료를 보고 두 사람 모두 감탄사를 내지른다. “의외로 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며 “꼭꼭 밀어가면서 짜야한다”는 조언에 따라 두 사람 모두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준다. 박가령 교사는 눈에 확 띄는 원색을, 울검 씨는 세련된 색감의 왕골을 골라 들었다.

한 가닥 한 가닥 꼼꼼하게 밀면서 쌓다 보니 어느새 완성된 작은 화문석 밭. 두 사람 모두 “너무 예쁘다”며 여기에 사진을 꽂아두자고 의기투합을 한다. 이어서 연탄을 피워 왕골을 말리는 더운 공장도 구경해 보고 긴 왕골을 도구를 이용해 3갈래로 쪼개보는 등 귀한 체험도 덤으로 해본다. 그 과정 내내 웃음과 수다가 끊이지 않는 두 사람. 세상 어느 모녀가 각별한 사이가 아니지 않겠나마는 이들 사이의 밀도는 지금 막 직조한 화문석처럼 좀 더 촘촘하고 치밀해 보인다.

“울검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정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울검이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았던 할머니를 어린 울검이가 많이 챙겼죠.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들어간 것도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에게 침대와 자기 방을 양보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할머니 말을 혼자 알아들어 가족들에게 전해 주고 바쁜 부모님 대신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다니며 운동을 시켜

드린 것도 딸 몫이었다. 돌아가실 즈음 치매가 오신 할머니가 울검 씨 새 옷이며 수행평가물을 내다 버렸을 때 그만 울컥해 목소리를 높인 엄마를 다독이며 “수행평가는 다시 하면 된다”고 막아선 것도 울검 씨였다.

“엄마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할머니랑 엄마랑 아옹다옹도 많이 하고 다투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소설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와의 추억은 정말 잊지 못할 것들이 많았죠.”

웃음 많고 발랄한 울검 씨가 눈꼬리를 휘며 미소 짓는다. 자칫 감동으로 가라앉을 뻔한(?) 분위기가 울검 씨의 웃음 덕분에 다시 훑 끌려 올라간다. 다음 코스는 강화도에 온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은 찾아가 보는 전등사이다. 381년 고구려 소수림왕 때 지어져 고려 충렬왕 때 정화공주가 이곳에 옥등을 시주하면서 전등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유서 깊은 절이다.

보통의 절이 그렇듯 이곳도 꽤나 가파른 산길을 올라야 한다. 조선 중기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웅보전과 그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나무상, 수령이 500년이 넘는 은행나무 등은 이곳 전등사의 상징이다. 박가령 교사가 이걸 보라며 ‘범종(梵鐘)’, ‘법고(法鼓)’, ‘운판(雲板)’, ‘목어(木魚)’ 네 개가 한꺼번에 들어 있는 누각을 가리킨다. 작은 공간 안에 다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건 흔한 풍경이 아니라 말과 함께 예전에 어느 비구니가 치던, 마지 흙을 추는 듯 아



름다웠다는 법고 치는 이야기도 들려준다. 음악 교사로서의 직업 정신도 있지만 여행을 좋아한다는 취미의 진가도 매 순간 여지없이 드러난다.

맑은 딸, 자랑스러운 엄마

조금씩 세상이 노란빛으로 물들어가는 와중에 석모도로 들어가는 긴 다리를 빠르게 달렸다. 민머루 해수욕장에 가기 위해서다. 도착한 민머루 해수욕장은 여전히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고 있었다. 바닷물이 빠져 꽤나 넓게 펼쳐진 갯벌이 인상적인 이곳에서 아이들은 손과 발, 얼굴에 뽕을 묻힌 채 갯벌 체험을 하기에 여념이 없다. 여기까지 왔는데 모녀 역시 이 기회를 놓칠쏘냐. 신발을 벗어두고 성큼성큼 갯벌로 들어가는 두 여자. 사춘기 소녀로 돌아간 듯 까르르 웃고 달린다. 아기 때로 돌아간 듯 엄마 등에 덩석 업히는 울겜 씨. 엄마보다 훌쩍 큰 키를 자랑하지만 엄마를 업기는 버거워하는 딸의 모습에 그만 웃음이 터진다. 손을 꼭 잡은 채 일몰을 바라보는 모녀. 그 뒷모습에서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제 기억에 엄마는 늘 선생님이셨어요. 가끔은 무조건적 내 편만 들어 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선생님답게 중립적·이성적으로 상황을 봐주셨던 게 섭섭하기도 했지만 제게는 늘 한결같이 자랑스러운 엄마였죠.”

“요즘은 어쩌다 옆에서 잠든 딸을 보면 언제 이렇게 컸을까, 애가 정말 내가 낳은 아이가 맞나 하는 신기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울겜이를 임신했을 때 맑고 밝은 아이를 낳고 싶다고 소원하며 태교를 했는데 출산하고 난 뒤 친구들이 찾아와 아이를 보곤 ‘어쩔 저렇게 아이가 맑냐’고 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의 엄마, 지금의 딸... 두 사람이 교환하는 시선이 아련하고 아름답다. 저녁식사는 강화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식을 먹어보기로 했다. 바로 젓국갈비다. <알쓸신잡>에 나와서 유명해졌지만 강화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고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이곳만의 향토음식이다. 칼칼한 순무김치와 함께 먹는 젓국갈비 맛은 딸 그대로 담백하고 깔끔한 것이 일품이다. 모두가 국물까지 남김없이 싹싹 긁어 치웠다.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다. 아침식사를 하고 나오자 광활하게 펼쳐진 파란 하늘에 모두가 감탄사를 감추지 못한다. 숙소가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던 덕분에 뜻밖에도 기막힌 뷰를 선물 받은 것이다. 모두가 하늘을 훌끔대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첫 번째 방문지는 강화읍에 있는 성공회 강화성당이다. 1896년 강화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세례자가 나온 것을 기념해 1900년에 세운 성당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성당으로 고즈넉하고 고아하기가 이를 데 없다.





서로에게 버팀목이자 삶의 희망이 되어

1박 2일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는 '광선보'. 강화도 요새지의 총사령부로 영조 때 개축을 한 이곳은 과거부터 매우 중요한 군사요충지였다. 보 앞에 흐르고 있는 강화해협에 마포와 개성은 물론, 중국까지 직항할 수 있는 포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화약 냄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더없이 아름다운 풍경만이 남아있지만 험난했던 과거의 여정 없이 어찌 현세의 평화가 있을까.

“엄마와 다투기도 많이 다했지만 가장 고마운 점은 제게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주시고 꿈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직장인으로서도 살지만, 연기하면서 연극배우로도 살 수 있는 건 모두 엄마가 ‘우물 안에만 있지 말라’고 격려하고 지지해주신 덕분이었죠. 엄마는 제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알려주신 분이예요. 그래서 힘이 들 때면 저는 지금도 엄마 목소리가 가장 듣고 싶어요.”

“울컴이는 저의 버팀목이자 내가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준 딸입니다. 스승의 날, 생일날이면 주변 지인들까지 동원해서 제게 축하 문자며 축하 편지를 보내게 할 정도로 사려 깊고 센스 있는 딸이기도 해요. 저는 지금도 말해요. 지금의 저를 만든 건 세 분의 은사님들, 학생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만들어준 내 자식 그리고 제게 인생을 가르쳐준 학생들이라고요.”

삶은 누구에게나 엇갈려 쌓이고 직조되는 희로애락의 집합체이다.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눈물을 쏟았지만 결국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서로가 있어서 행복할 모녀. 이번 강화도 여행을 통해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속내를 들여다본 두 사람이 걷는 길이 가족을 넘어 가장 좋은 친구이자 삶의 동반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엄마, 다음 여행도 쿨? OK~! ☺

천주교 신자인 박가령 교사의 표정이 유독 예사롭지 않다. 소박하고 단출하기 짝이 없는 사제관을 보는 애뜻한 시선, 안에서 들려오는 성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깊고 질다.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지만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반영하고 배려한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답다”는 엄마의 말에 울컴 씨 역시 “종교는 없지만 이곳에 오니 마음이 무척 편안해진다”고 속삭인다. 실제로 이곳 성당에는 타종을 해 미사 시간을 알리고 보리수나무와 회화나무를 심어 불교와 유교의 상징을 울타리 안에 두기도 한 곳이다. 미사 시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자고 약속을 한 뒤 이번에는 조양방직으로 향했다. 강화 최초의 인건공장으로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거대한 빈티지 카페로 변신한 곳, SNS 덕분에 전국적인 유명세를 치르는 곳이다. 줄 서서 주문하고, 다시 그 시간만큼 기다려야 음료가 나왔지만 다양한 건물들 덕분에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다. 사방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덕분에 두 모녀도 덩달아 즐거운 촬영 시간을 보내고 나왔다. 다시 돌아간 성당은 미사가 끝나 문을 활짝 연 채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진 내부는 고풍스러운 조명과 세월이 흔적 이 묻은 의자, 성당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자연 채광 덕분에 노란빛이 짙 차 있었다.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제단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묻어난다.

〈아름다운 동행〉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독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The-K 매거진〉이
만들어드립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wcy2000@naver.com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박가령 (부산 금정고 교사)

제 인생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서 저를 돌아볼 수 있었고 몇 년 치 어머니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딸과 들어서 여행을 자주 다녔지만 이렇게 둘 관계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여행에서 저는 강화성당과 화문석 체험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양종교인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선교 활동을 하면서 우리 문화를 최대한 존중하고 접목시킨 게 익숙한 마음이 들게 했고 문명에 물들지 않은 사제관을 보면서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바로 옆에 철종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작은 궁까지 아울러서 더욱더 좋았어요. 우리의 전통 화문석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대표 부부와 함께했던 시간도 의미가 컸고요. 항상 공제회 회원들의 활력과 힐링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시는 한국교직원공제회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윤희 (딸)

처음 엄마한테 갑작스럽게 여행 제의를 받고 당황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국 엄마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쌓고 갑니다. 사실 평생 화문석에 대해서 모르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직접 만들어보기까지 했으니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10년 뒤에 아는 것과 지금 아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여행하면서 늘 잘 웃고 한결같은 엄마의 면모를 다시금 볼 수 있어서 좋았고 특별한 장소에 갈 때마다 관련 배경을 설명해주시고 재미난 뒷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이어서가 아니라 엄마는 평소에도 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엄마여서 정말 좋았어요. 서로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빨간 가방에 비슷한 옷을 챙겨온 것도 재미있었고요.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요? 엄마 고맙습니다~♥

모녀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강화도령 화문석

강화도 최초로 왕골 재배부터 제작, 판매, 교육까지 하는 곳이다. 때를 잘 맞춰 가면 왕골을 말리고 쪄가는 모습까지 볼 수 있다. 화문석 발, 티 코스터, 테이블 매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화문석자리와 공예품도 구입할 수 있다.

- ☎ 032-934-6858
- 📍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207-3



민머루 해수욕장

석도도의 유일한 해수욕장으로 생태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다. 바닷물이 빠지면 수십만 평 규모의 갯벌이 등장해 장관을 이루는데 갯벌을 체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 희귀종인 저어새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1리



성공회 강화성당

강화성당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424호. 외관은 한옥, 내부는 서양식으로 지어진 서구 기독교 토착화의 산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성당이다. 백두산 적송을 직접 신의주에서 뗏목으로 운반해와 지었으며 석재와 기와는 강화산을 사용했다.

- ☎ 032-934-6171
-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정길 27번길 10



전국갈비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새우젓과 돼지고기를 함께 즐겨왔다. 강화도 향토 음식인 전국갈비는 새우젓만으로 간을 하고 여기에 각종 채소와 돼지갈비를 넣어 끓여먹는 음식이다. 임금이 먹던 음식으로 담백한 감칠맛을 자랑하며 한번 먹어보면 자꾸 찾게 된다.

- ☎ 032-933-8070
-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21번길 22 용흥궁 식당

The-K설악산가족호텔에 머물며

설악산의 사계절을 한눈에,

변화무쌍 파노라마로 만끽하다

여행은 떠나는 것만으로도 설렘이지만, 늘 새로운 곳이 즐거움을 주는 건 아니다. 떠난 그곳이 나만의 별장처럼 편안하고, 익숙해서 더욱 이득할 때가 있다. 고즈넉한 자연의 품에서 소박한 여유를 즐기기 위해 이들이 The-K설악산가족호텔을 자주 찾는 이유도 그렇다.

글. 김유리 사진. 선규민



● “고즈넉한 자연의 품에서 소박한 여유를 누리고 싶다면 정말 강추하는 곳입니다. 산과 바다를 함께 접할 수 있는 휴양지로서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요?”

— 한국교직원공제회 방영석 회원 부부

은퇴 후 발견한 또 다른 즐거움

이대부속중학교에서 기술·공업교과를 가르치던 한국교직원공제회 방영석 회원은 정년퇴임 이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손에서 일을 놓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사진과의 인연이 그랬다.

“교사 재직시절 사진반을 담당했을 만큼 사진을 좋아하다보니 퇴직이후 사진첩을 내기도 하고, 작은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를 거쳐 관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집사람과 여행을 다니며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있죠.”

가족여행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던 수 십 년 전부터 방영석 회원은 아내 차금자 씨와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국내 숨겨진 명소 곳곳을 찾아 다녔다. 그만큼 부부에게 여행이란 삶의 일부이자 행복의 원천이었다. 특히 강원도는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었다. 교사생활을 하는 동안 방학이면 짐을 챙겨 강원도 남해항 민박집에서 한 달을 내리 지내기도 했다. 계절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변화무쌍한 매력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생기고 부터는 더 자주 찾게 되었다고 한다. 서울에서 세 시간이면 닿는 가까



운 곳에 산과 바다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The-K설악산가족호텔이 있기 때문이다.

천혜의 자연을 벗삼은 힐링여행

자녀가 장성하고 일선에서 물러난 부부는 언제부턴가 여행 패턴이 소박하고 편안함을 지향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The-K설악산가족호텔을 자주 찾는 이유에 여기에 있다.

“자연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잖아요? 저절로 힐링이 된달까. 호텔 앞에 펼쳐진 산새를 보면 막힌 것이 뺨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져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전경을 감상하다보면 마음을 어지럽히는 근심이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부부의 여행에는 그들만의 원칙이 있다. 유행과 성수기를 쫓지 않는다. 그리고 자연이 주는 안락함을 동반한 합리적인 여행지를 찾는다.

“하루를 쉬어도 제대로 쉬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좋은 여행이죠.” 아내 차금자 씨의 말에 방영석 회원 역시 크게 공감한다며 화려한 시설이나 요란한 분위기는 저절로 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The-K설악산가족호텔을 최고의 숙소로 꼽은 이유는 또 있다.

“리모델링 이후 쾌적해진 공간 덕에 더 자주 찾게 되더군요. 함께 간 지인들이 언제 다시 오냐고 물을 만큼 특별한 곳입니다. 특히 외국에서 온 친구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어요.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는 흔치 않니까요.”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방영석 회원은 주변 여행을 위한 꿀팁도 전수했다. “호텔이 설악산 가는 길에 있으니 첫날은 가볍게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오르는 걸 추천합니다. 둘째 날은 속초시내 관광을 하면 좋아요. 워낙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아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죠.”

그는 속초 주변에 어항이 많아 신선한 회를 즐길 수 있으니 자주 가는 사람이라면 단골집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다고 했다. 차금자 씨는 속초의 농산물 쇼핑을 적극 추천하며 “시장이나 농협에서 옥수수, 감자 등 질 좋고 값도 싼 농산물을 가족과 이웃하고 나누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고 전했다.

설악산 한 자락 너만의 별장 The-K설악산가족호텔

이미 The-K설악산가족호텔의 파노라마와 같은 사계절을 경험한 방영석 회원은 가을을 최고로 쳤다.

“설악산 단풍이 절경을 이룰 즈음 다시 호텔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른 숙박업소도 있지만 여기만큼 조용하고 편안함을 주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마치 우리만의 별장과 같은 곳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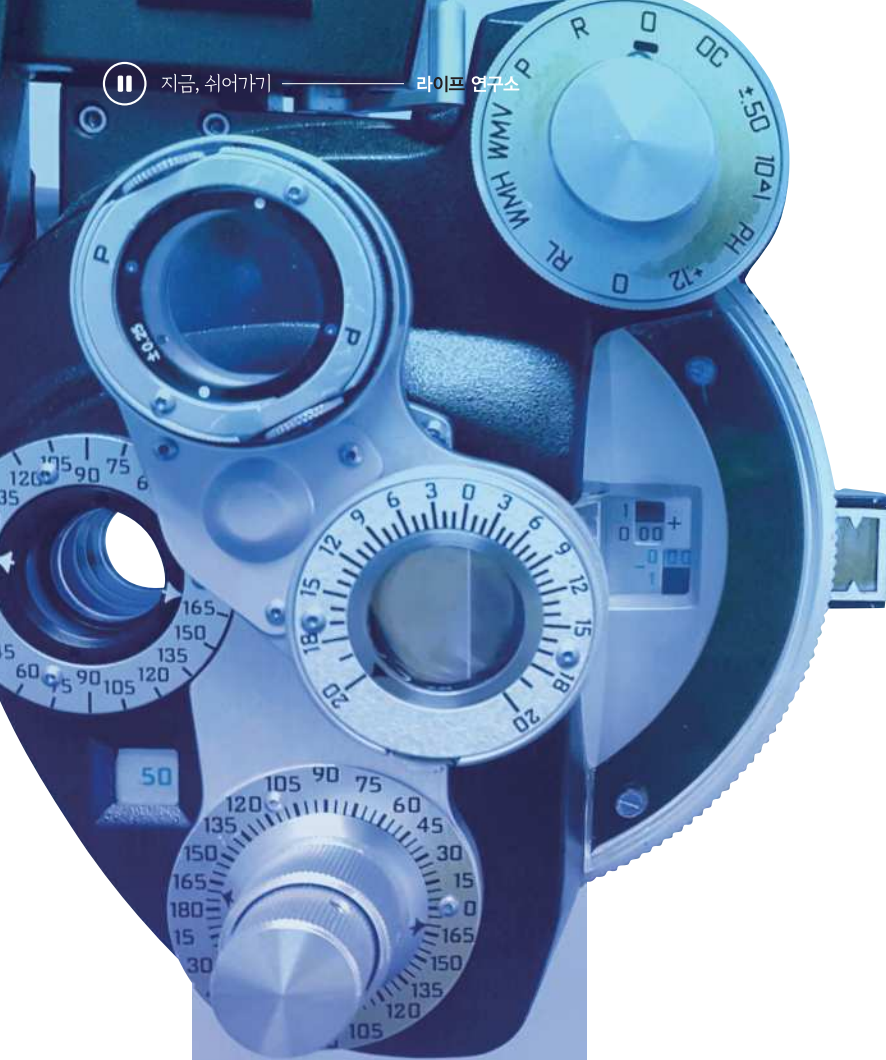
부부에게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언제 찾아와도 아늑한 집처럼 애정어린 공간임이 분명했다. 한결같은 직원들의 친절함 응대도 그렇고, 교직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이곳의 장점이라고 부부는 입을 모은다. 최근 장기투숙객을 위한 휴스테이 요금제까지 생겨 오래 머물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내내 여행이야기를 하는 부부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커켜이 쌓인 즐거운 추억 위로 다가올 여행이 주는 설렘이 더해졌다. 소박하고 편안한 여행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은 이들처럼, 여행은 그 자체만으로 삶의 한 페이지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

<The-K 설악산가족호텔 휴스테이 요금제 >

※ 8~30일 요금은 8일째부터 적용.

구분	일~목	금	토	
20평	3~7일	2만 5천원	4만 5천원	6만원
	8~30일	1만원	3만원	4만 5천원
29평	3~7일	5만 5천원	8만원	10만원
	8~30일	2만 5천원	5만원	7만원

㉠주소: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470-7 / ㉡TEL: 033-639-8100



안구의 안녕을 위하여



코앞에서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다. 우리의 삶에 편리와 유용을 가져다 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덕분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 했다. 휴식의 순간에마저 눈을 떼지 못하는 과용은 안과 질환을 증가시켰고, 중독을 불러일으켰다. 혹사당한 눈을 쉬게 할 방법은, 가속도가 붙은 노화에 제동을 걸 방법은 없는 걸까. 물론 있다. 단, 실천이 관건이다.
글. 편집실

백내장, 눈에 충분한 휴식을

우리의 눈은 조금씩 나이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스마트 기기 사용이 잦은 현대에 들어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안과 질환이 늘어나는 추세.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진 백내장이 중·장년층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백내장은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수정체의 단백질 성분이 변화함에 따라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가까운 곳의 물체나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 심할 경우 녹내장 같은 합병증이나 실명까지 이를 수 있다. 실제로 백내장으로 인해 실명하는 인구가 일 년에 약 1600만 명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조사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의 노화를 늦추는 것. 스마트 기기는 밝은 곳에서 사용하는 게 기본이지만, 어두운 장소라면 화면 밝기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흔들리는 차 안에서 오랜 시간 볼 경우 눈의 피로감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틈틈이 눈을 감고 있거나 먼 곳을 바라보며 휴식하는 것도 잊지 말자.



안구건조증, 틈날 때마다 깜빡깜빡

현대인의 약 75%가 안구건조증을 겪고 있다고 한다. 유병률은 10년 사이 무려 두 배로 늘었다. 잦은 스마트 기기 사용이 가장 큰 원인.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고, 당연히 안구의 눈물이 마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에는 안구건조증 환자가 늘어나는 터라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구건조증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뻑뻑한 느낌이 들고, 콧속 찌르는 듯한 통증이 이어지며, 실핏줄이 빨갛게 서는 것이 일반적인 증상. 그저 피곤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이 아닌, 엄연한 질환으로 인식하는 게 맞다. 일단은 눈물이 원활하게 분비되도록 해 눈을 촉촉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눈 주위 근육이 이완되고 안구 표면에 눈물막이 형성되어 도움이 된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실내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환기하는 것이 좋다. 증상이 심하다고 느껴진다면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을 하는 것도 잠시나마 피로감을 덜 수 있는 방법. 경우에 따라 인공눈물을 사용하되, 과용은 각막상피세포 손상이나 독성 각결막염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하루에 4회 이하로 횟수를 제한하도록 한다.



근시·난시, 스마트 기기 사용은 가능한 한 적게

나이를 불문하고, 예전에 비해 안경 쓴 사람들이 늘었다. 이는 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데, 밝은 화면 속의 작은 글씨를 오랫동안 또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근시 혹은 난시가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 게다가 눈에서 가까운 거리라 눈의 초점 조절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50%가 근시, 이 중 10억 명은 고도근시가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됐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로 1시간 30분 동안 작업을 한 경우, 초점 조절 기능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이다. 때문에 50분 사용 후 10분 이상 눈을 쉬게 하는 것을 권장하며, 2시간 이상 연속 사용은 피해야 한다.

또한 모니터와 눈의 높이를 수직이 되도록 조절해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시력이 성장 중에 있는 어린이는 너무 오랫동안 디지털 기기를 들여다보았을 때 초점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근시가 발생, 실제 근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건강이 마찬가지로 특이하나 시력은 한 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려운 터. 모니터를 쳐다보는 시간이 너무 길다면, 한시라도 빨리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㉔



Do it!

더 건강한 눈을 위해!

-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 눈을 자주 깜빡인다.
- 어두운 곳에서는 화면을 너무 밝지 않게 조정한다.
- 틈틈이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한다.
- 흔들리는 차 안에서 스마트 기기나 책을 보지 않는다.
- 눈 화장을 한 후에는 클렌징을 꼼꼼하게 한다.
- 눈 건강에 도움 되는 당근, 결명자, 블루베리 등을 먹는다.
- 실내 습도를 40~70%로 유지한다.
-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간다.
- 야외활동 시에는 선글라스와 모자 등으로 자외선을 차단한다.
- 과도한 음주, 흡연, 스트레스를 멀리한다.
- 방부제가 포함된 인공눈물을 과용하지 않는다.



The-K 미래교사 해외탐험대 제1기 출격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교육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다

지난 6월 1일,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눈에 띄는 공지를 하나 걸었다. 미래교사가 될 학생들에게 해외교육 탐방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전국의 교원대, 교육대, 사범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놀라움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인터넷 카페에는 팀원을 모집한다는 글들이 넘쳐났고 동기, 친구, 선후배 등 교육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한곳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6월 한 달간 접수된 학생들의 숫자는 관계자들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전국에서 총 448개 팀, 무려 2,240여 명이 참가신청을 한 것이다. 7월 5일부터 11일까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20개 팀 83명을 선발했고 선발된 인원은 마지막 관문, PT와 면접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자신들의 비전을 제시하고 자신들이 가야할 타당한 이유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 건물에 모여들었다.

7월 15일 PT 당일, 대기실로 사용된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1차 관문을 통과한 만큼 학생들 모두의 표정에서는 최종 합격자명단에 들고 싶은 염원이 간절했기 때문이었다.

“미래교사 해외탐험대 공지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발견했습니다. 정말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에 맞는 동기들과 팀을 짜고 준비를 했어요. 해외 탐방을 통해 선진교육을 잘 배우고 향후 교육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꼭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들을 검토하던 S여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지원 동기와 목표를 이야기 해준다.

오전 10시, 본격적인 PT가 시작되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한국장학재단 관계자와 대학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신중한 표정으로 학생들이 미리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는 와중에 학생들이 정





첫걸음을 떼다

아인슈타인은 '지식의 유일한 출처는 경험'이라고 했다. 경험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지식의 중요성을 일컫는 이 문장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한국장학재단이 공동으로 올해 첫 번째로 시도하는 '미래교사 해외탐험대'의 행보와 더없이 부합한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교사들에게 선진교육을 체험하고 보다 구체적인 교사상을 그릴 수 있도록 한 초대형 프로젝트! 그 모든 것을 만나보자. 글. 이경희 사진. 이성원

해진 순번대로 들어와 계획과 포부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팀 소개 1분, PT 5분, 질의응답 4분으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방문 국가도, 기관도, 목표도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두가 이번 경험을 통해 향후 교사가 됐을 때 꼭 필요한 자양분을 얻기를 원한다는 굳은 의지였다. PT가 끝난 뒤에 이어진 심사위원들의 송곳 같은 질문에 진땀을 흘린 학생들도 다수. 그러나 옥석을 가려내야 하는 심사위원들의 매서운 관점을 피할 수는 없다.

예비교사들, 미래를 경험하고 대비하라

그리고 마침내 7월 24일 수요일, The-K 미래교사 해외탐험대 제 1기 발대식이 열리는 날이 찾아왔다. 6월부터 시작된 기나긴 여정

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발점이 되는 날이 밝은 것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그랜드홀에 도착하니 대형 현수막들과 안내판들이 오늘 발대식 현장을 실감나게 한다. '미래교사 해외탐험대'가 갖는 첫 번째 대형행사이니만큼 모두가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리저리 바쁘게 뛰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오후 2시가 되자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했다. 내외빈 소개와 국민 의례가 이어지고 한국교직원공제회 차성수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단상에 올라가는 대신 학생들과 가깝게 눈높이를 맞춘 차 이사장이 먼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해도 이렇게 치열한 경쟁률은 상상하지 못했기에 고맙고 함께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고 교육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가르칠 아이들의 삶이 결정됩니다. 우리 공제회는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여러분들은 선배들의 도움으로 세계 탐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 세대는 전 세대가 뿌려주는 씨앗의 순환관계 속에서 성장한다고 생각하기에 여러분도 훗날 그런 선배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긴장되고 힘들었을 텐데 그 긴장의 순간이 성장의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한국장학재단의 이계영 이사도 축사를 위해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이 이사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초중고를 경험하면서 만나는 선생님들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운을 뗐 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해외 탐방을 하려는 이 마음자세를 교사가 됐을 때도 잊지 말아달라. 좋은 경험할 기회를 가진 걸 축하드리고 안전하게 아무 위험 없이 다녀오길 바란다”고 인사해 참석한 학생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 공제회 소개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가 성사되기까지 경과보고가 이어지고 탐

험대 학생 중 대표로 'I see, ICT'팀의 김동건 학생, '코카콜라'팀의 정유진 학생이 대표로 나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안전하게 탐험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장학증서와 사진촬영이 이어진 뒤 오늘 가장 많은 웃음이 터졌던 팀 소개 시간이 시작됐다. 합격한 자의 여유덕분일까? PT와 면접 때의 긴장과 걱정은 저만치 던져두고 재기발랄하게 무대에 오른 학생들은 각자 자기소개와 함께 팀 이름 소개, 방문국가, 체험 방법과 목적 등을 설명했다.

싱가포르의 선진 ICT(정보통신기술) 초등교육을 탐방하는 'I see, ICT' 팀, 독일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탐색하는 '독독, 민주가 뭐예요?' 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 특수교육의 현장을 체험하는 '유티피어' 팀, 다문화 사회로 바뀌는 한국의 현실에 맞춰 캐나다의 다문화를 탐색하는 'Yes, We Canada' 등 12개 팀은 각자 다부진 포부와 계획을 발표, 탐험대 동기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신나는 구호와 함께 자축 세리머니를 펼친 팀들 덕분에 박수와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젊은 혈기가 뿜어내는 기분 좋은 에너지가 그랜드홀을 꽉 채우자 관계자 및 내외빈 모두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가실 줄을 모른다.

잠깐의 휴식시간을 거쳐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김선옥 장학사와 인터내셔널SOS 최신연 팀장의 특강과 안전교육으로 오늘의 발대식이 마무리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실현하기 위해 시작한 이번 프로젝트!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에 투자함으로써 교육계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이번 '미래교사 해외탐험대 프로젝트'의 의미는 먼 훗날, 해외탐험대 제1기 예비교사들의 제자가 판단해줄 것이다. ㊦



Mini Interview



[통·현·미]

“통합교육의 현실과 부딪혀 미래를 찾아 떠나는 예비교사들”

하소민(서울교대), 구호정(전주교대), 박설(부산대), 신지민(서울교대)

저희는 학교 홈페이지에 뜬 글을 보고 이번 미래교사 해외탐험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대학교는 모두 제각각이지만 고등학교 선후배관계로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뭉쳤습니다. 3주 정도 모여서 준비를 했는데 아직 미진한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에 비해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배우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현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했지요. 합격 소식을 듣고 친구들은 물론 고교 선생님들까지 너무 기뻐해주셔서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간에 공감하다]

“교육이 일어나는 모든 공간에서 학생들에게 공감한다”

정수은(부산대), 정소희(부산대), 김준호(부산대), 김문주(부산대)

저희는 학교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이번 프로젝트에 도전할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주제를 정하고 교내 커뮤니티를 통해서 대원을 모집했어요.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교육공간에 대한 경험과 해외기관 탐방이라는 추억의 기회를 주신 것에 무엇보다 감사드리며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토피아]

“유아특수교육학과의 유토피아를 찾아서”

김수현(서울교대), 박유윤(서울교대), 김세은(서울교대), 서재희(서울교대)

김세은 팀원의 외숙모님이 초등학교 교사이신데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모집공고를 보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네 명은 대학동기로 평소 유쾌하고 마음이 잘 맞아 이번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했던 덕분에 주제 선정에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선진국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체험하면서 우리나라에 접목시켜보고 싶다는 꿈을 꿉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 건물에 들어올 때부터 분이 정말 좋았는데 예비교사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2019년 9월 1일

새로워진 장기저축급여 Q&A

회원님들의 공금증을 풀어드립니다

1971년 6월 시행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역사와 함께해온 장기저축급여 제도가 5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 ▲이자율 인상
- ▲상한구좌수 확대
- ▲원리금 계산 방식 변경이라는 큰 틀 아래 새로워진 장기저축급여에 대한 회원님들의 공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글. 편집실



이자율 3.74%(연복리)로 0.14%p 인상

납입한도 월 최대 90만원으로 확대



Q 장기저축급여는 어떤 제도인가?

ⓐ 장기저축급여는 매월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국내 최장기 적금 상품이다. 가입 시 한국교직원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이 부여돼 회원으로서 대여·보험 및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의 가장 큰 장점은 15.4%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일반 금융 상품과 달리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0~3%대로 저율과세된다는 점이다.

시중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과 다르게 일체의 보수, 수수료, 사업비 등이 부과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다. 또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의해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장기저축급여는 퇴직하면서 퇴직급여금을 청구할 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오래 납입할수록 연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장기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9년 9월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① 먼저 장기저축급여의 급여율(이자율)이 기존 3.60%에서 3.74%로 인상된다. 또 기존에는 25년 이상 납입 후 퇴직 시 최고 급여율이 적용됐으나, 올해 9월 이후 납입하는 원금부터는 퇴직 시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최고 급여율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원리금 계산 방식이 시중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자율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중 금융 상품과의 비교가 쉬워지고, 월별로 이자가 균등한 비율로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상한구좌수가 기존 1000구좌(월 60만원)에서 1500구좌(월 90만원)까지 확대된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급여율(이자율)	연복리 3.60% (25년 이상 납입 후 퇴직 시)	연복리 3.74%(퇴직 시)
원리금 계산방식	연배율제 (원금 × 납입기간별 배율)	이자율제 (시중 금융기관과 동일)
상한구좌수 (월납입한도)	1000구좌(월 60만원)	1500구좌(월 90만원)

원리금 계산방식이 어떻게 바뀌는가?

① 간단히 말해 배율제에서 이자율제로 변경된다. 기존의 장기저축급여 원리금을 구할 때는 원금에 납입기간별 배율을 곱해 계산했다. 예컨대 월 30만원씩 25년간 총 9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9000만원 × 1.610(3.60%, 25년차 배율) = 1억4490만원'으로 원리금이 계산된다. 이는 장기저축급여가 처음 시행된 1971년의 전산 수준으로는 복잡한 승수 계산이 어려워 미리 납입기간별로 배율을 계산하고, 이를 원금에 곱해 원리금을 계산하는 '배율제'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배율제 방식은 급여율(이자율)이 바뀌지 않으면 계산이 간편하지만, 급여율이 바뀌면 별도의 수리적 보정이 필요해 계산이 매우 복잡해진다. 또한 이자가 월별로 균등하게 증가하지 않고, 연 단위로 배율이 바뀌는 달에 한꺼번에 증가하는 단점이 있어 이자율제는 원금에 (1+이자율)^{기간}을 곱해 원리금을 계산한다. 기본적으로 12개월, 24개월과 같이 연 단위로 납입 시 두 방식의 원리금은 동일하나, 연 미만의 개월이 있을 경우 월별로 이자가 균등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회원에게는 새로 도입하는 이자율제가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변경 내용은 2019년 9월 이후 가입하는 신규 회원부터 적용되는지?

① 그렇지 않다. 변경 내용은 모든 공제회 일반회원에 적용된다. 2019년 8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8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산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며, 2019년 9월 이후 납입한 금액은 새로운 계산 방식에 따라 원리금을 계산한다.

상한구좌수 확대는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어 그런 것 아닌지?

① 아니다. 공제회는 최근 5개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달성, 2018년 말 기준 준비금적립률 100%를 상회하고 있다. 상한구좌수를 확대해달라는 회원의 요청에 부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에게 더 큰 혜택을 환원하기 위한 측면이 더욱 크다. 증좌를 원할 경우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의 인터넷 창구-저축-신청-장기저축급여 증·감좌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고직원공제회 재무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자산	24.9조	26.7조	29.2조	32.5조	34.6조
손익	220억	1085억	1723억	4452억	2850억
준비금 적립률	94.6%	95.5%	96.9%	99.6%	100.2%

제도가 개선되면 탈퇴 후 재가입해도 불이익이 없나?

① 퇴직(정년, 명예, 일반, 임기만료)으로 장기저축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2019년 9월 1일 이후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한다. 재직 중 임의로 탈퇴할 경우 원금은 100% 지급되나 부가금(이자)은 다음과 같이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장기저축급여 탈퇴 시 원리금 지급률>

가입기간	원리금 지급률
5년 미만	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40%
5년 이상 ~ 10년 미만	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50%
10년 이상 ~ 15년 미만	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60%
15년 이상 ~ 20년 미만	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70%
20년 이상	원리금 100%

치매공제(1907) & 간편가입치매공제(1907)

‘치매’ 앞에 쫓지 말자! The-K와 함께라면 든든하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치매 환자 1인당 평균 관리비용은 연간 총 2074만원이다. 치매에 걸리면 이렇다 할 치료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한 번 놀라고, 치료·관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란다. 그러니 ‘치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 당연지사. 하지만, 벌써 쫓 필요 없다. The-K가 치매에 대비할 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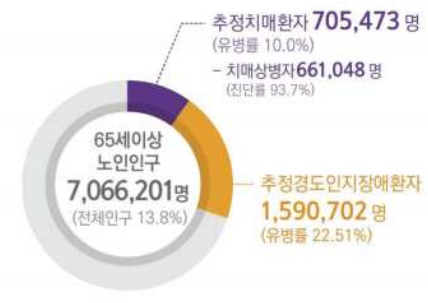
글. 편집실

대한민국 치매 현황은?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8’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0만 5473명. 치매 유병률이 10%가 넘는다.

치매 환자는 70세 미만 초기노령기 구간부터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속히 증가하여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 구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에는 100만 명, 2039년에는 2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 손상으로 기억력, 인지기능 등의 장애가 생겨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긴 하지만 왜 발병하는지, 언제 발병하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고 완치가 없는 만큼 무서운 질병이 바로 치매다.

치매환자 현황



치료비용은 또 어떠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약 207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관리비 부담이 큰 만큼 연금, 보험 등 사 전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치매 부담 어떻게 줄일까?

치매 질환에 대한 두려움과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치매를 제대로 알고 지속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 증상 악화를 지연시켜 환자의 독립성을 연장시키고 가족들의 간병 시간과 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하고, 치매 발생에 대비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한 병인 만큼 보장부터 간병자금 지원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고직원공제회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치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증부터 중증치매까지 보장 가능한 교육가족 전용 치매보험인 '치매공제(1907)', '간편가입치매공제(1907)' 상품을 선보였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철벽 대비, '치매공제(1907)'

치매공제(1907)는 가벼운 경증치매부터 심각한 중증치매까지 모두 보장하고, 간병자금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교육가족 전용 치매보험이다.

이 상품은 주급여가 2종인 상품으로,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간병공제와 치매공제 중 하나의 주급여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간병공제는 중증장기요양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를 모두 보장하는 종합형 상품이고, 치매

공제는 중증치매상태를 보장하는 실속형 상품이다. 치매 및 장기요양의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포괄적 보장도 가능해졌다. 경증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보장은 물론, 경증장기요양부터 중증장기요양까지도 보장(1종 가입 시)해 준다.

또한 간병자금을 매달 지원해준다. 중증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종신까지 월 100만원(2구좌 기준) 또는 중증장기요양 진단부터 종신까지 월 100만원(2구좌 기준, 1종 가입 시)의 간병자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특약을 통해 허혈성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입원·수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치매공제(1907) 가입은 20세부터 75세까지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유병자, 고령자도 간편하게! '간편가입치매공제(1907)'

병을 앓고 있거나, 나이가 많아 치매공제(1907) 가입이 어려운 교육가족을 위해 '간편가입치매공제(1907)' 상품도 마련했다. 이 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급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심사' 상품이다.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연령자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심사상품 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지만, '치매공제(1907)'와 동일한 보장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병 치매. 한국고직원공제회를 통해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두려움 대신 편안한 노후가 교육가족과 함께할 것이다. ㉔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



자료 : (2018) 중앙치매센터

보험관련 문의 : 1577-3993

눈에 보이는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픈 곳 척척 찾아내 치료하고 새것으로 갈아 끼우면 될 테니 말이죠. 일하는 동안 받는 스트레스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다 꺼내 보여주지 못하는 마음은 점점 많은 고민과 문제를 낳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세대, 직군, 이해관계자들과 얽혀 특수한 공간에서 일하는 공제회원들의 건강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The-K 마음쉼’으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을 읽고, 실 곳을 내어드릴게요.
글. 편집실



공제회원을 위한 무료 심리 상담 ‘The-K 마음쉼’ 오픈

당신의 마음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일상의 모든 고민까지 전문가와 상담 가능, 최대 5회까지 전액지원”

고민, 혼자서만 하지 마세요!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에 C(Choice)”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의미로 유명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치게 되고, 종종 수많은 걱정과 고민에 둘러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고민이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도 말 못 할 고민도 있기 마련인데요. 끄끙 앓기만 하다 결국 꼬이 버려 최악의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고민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해결책입니다.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 전문가가 고민·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구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관찰아요, The-K가 들어줄게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의 지치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업무 스트레스부터 일상의 크고 작은 고민까지 해결하기 위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 ‘The-K 마음쉼’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The-K 마음쉼은 공제회 현직 회원이라면 누구나 1인당 5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방법은 대면 상담 및 전화·화상·메신저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상담 주제는 교권침해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의 작은 고민부터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정 문

제까지 전문가에게 상담·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11월까지 특강·집단·힐링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1박 2일 일정의 힐링캠프는 총 4회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1회당 30여 명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 등 소속별로 단체 접수 후 참가 가능한 웰니스 프로그램도 18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The-K 마음쉼’ 심리상담 영역>

상담 분야	세부 사항
직장부문	· 교권침해, 직무스트레스, 경력개발, 리더십, 업무부적응, 양성평등, 의사소통 등
심리/정서부문	· 강박, 우울, 불안, 분노, 자살충동 등
기타	· 가족 내 의사소통, 개인적인 고민상담 등

‘The-K 마음쉼’이 마음의 짐을 털어드려요!

머뭇거리며 주저할수록 고민은 커지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알아도 정답은 보이지 않을 때 전문가의 조언에 기대어 보세요. ‘The-K 마음쉼’ 상담 신청은 The-K 마음쉼 전용 홈페이지(www.ktcu-hue.com) 또는 전화(1566-5228)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상담 일정을 협의하여 상담이 진행되며, 꾸준한 후속 관리를 통해 만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현직 회원이라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는 무료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건강한 마음으로 일상에 에너지를 채워갈 수 있도록 The-K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Q&A

Q. 상담 내용이 소속 기관에 알려지는 거 아닌가요?

A. 모든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소속 기관 및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상담 내용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Q. 대면 상담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전국 상담센터 및 신청 회원이 원하는 장소(협의 후 결정, 자택 제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Q. 상담 비용은 누가 지급하나요?

A. 최대 5회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무료 지원합니다.

Q. 상담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상담사와 협의하여 월~토요일, 9시~21시에 가능합니다.

Q. 누가 상담을 해주나요?

A. 한국심리학회(임상·상담), 한국상담학회 및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증 소지, 심리학 석사 졸업 이상, 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춘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골프 마니아들에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날, 마음껏 골프를 칠 수 있는 날만큼 행복한 시간이 또 있을까? 오늘은 여주 소피아그린CC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축제날이다. 새벽부터 쏟아진 폭우가 모두의 근심걱정을 샅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즐거운 '공제회 회원의 날'에 빠지겠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유쾌했던 시간들을 지상중계한다.

글. 이경희 사진. 황원

골프가 있어 더 즐거운 인생!

여주 소피아그린CC와 함께하는 The - K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의 날

날씨가 도와준 최고의 축제

해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이벤트가 있다. 바로 여름 한복판에 개최되는 '여주 소피아그린CC와 함께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의 날'이다. 작년에는 사흘에 걸쳐 열렸던 행사가 올해는 이틀로 줄었지만 행사가 축소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방에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열렬한 요청으로 인해 경상권(리더스CC)과 호남권(무등산CC)에서도 각각 하루씩 공제회 회원의 날이 진행이 됐기 때문이다.

소피아그린CC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취재진이 방문한 날짜는 8월 1일. 그러나 전날 밤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장마의 여파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 특히 새벽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에 여주로 달려가는 발걸음은 조마조마하기만 했다. 그러나 막상 소피아그린CC에 도착하니 지금까지와는 영 판판인 분위기가 펼쳐졌다. 로비를 오가며 기념품을 받아든 회원들의 밝디 밝은 표정, 비가 잦아들면서 조금씩 환해지는 하늘까지. 말 그대로 즐거운 축제 한마당의 느낌이 물씬 풍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춘천에서 새벽같이 달려왔다는 최대위 회원은 "오는 길에 비가 많이 쏟아져서 걱정은 됐지만 중간에 그냥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다"며 깔깔 웃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라운딩을 돌기 전이지만 회원들 모두가 바쁘다. 팀을 짜서 온 덕분에 여기저기서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터지고 소피아그린CC에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뜨끈한 아침식사를 즐기는 모습들도 보인다. 클럽하우스 밖에 설치된 The - K 홍보부스에도 회원들이 줄을 서 있다. 다트도 던지고 퍼팅도 하면서 푸짐한 경품이 걸린 게임을 하느라 모두가 아이처럼 즐거워하고 있는 것.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라운딩에 나서볼까요?







최고의 서비스로 공제회 회원들을 대접하다

첫 번째 홀에 다다르자 회원들과 함께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차성수 이사장의 모습이 눈에 띈다. 성공적으로 공을 날리면 모두가 환호성을 보내고,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들이 모두가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즐거워 보인다.

“폭우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도움으로 비가 기적처럼 멈추면서 우리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동안 쌓였던 근심걱정 다 날려버리시고 즐거운 라운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주시시오.”

호탕한 웃음을 남긴 차성수 이사장과 회원들이 손을 흔들며 다음 홀을 향해 떠난다.

오늘 행사는 무엇보다 공제회 회원들을 위한 배려와 서비스가 돋보였다. 18홀 중 이벤트가 걸려 있는 홀이 무려 12홀이나 되니 모두 공을 치는 맛(?)이 나는 것. 소피아그린CC의 권순웅 팀장은 이번에는 특별히 The-K호텔 숙박권을 증정하는 ‘휴(休)스테이 이벤트’에 신경을 많이 썼으며 특히 전체 내장객의 45%를 차지하는 공제회 회원들을 위한 성공적 행사를 위해 한 달 전부터 전 직원이 부단히 노력해왔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잊을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얻은 회원도 나왔다. 코스 레이아웃과 잔디질이 좋기로 유명한 소피아그린CC의 행사답게 무려 ‘홀인원(올해는 부상으로 The-K손해보험에서 증정하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이 나온 것이다. 박미성 회원은 이렇게 큰 행운을 차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이번 행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는 덕담을 잊지 않았다. 높은 경쟁률 속에서 참가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 다음 학기를 위한 에너지 충전과 은퇴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동반자로서 이보다 즐거운 행사가 있을까? 모두가 소리 높여 “내년에도 꼭 초대해주세요!”를 외친 회원들의 소망 안에 즐거움과 웃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K)



Mini Interview



“나이스! 홀인원~” 행운의 여신이 웃다

박미성 회원(경기여고)

평소 소피아그린CC를 자주 이용하는 회원입니다. 소피아그린CC에 왔다가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의 날’ 공지를 봤어요. 평소에도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제회 회원인 동료교사들과 팀을 짜서 신청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참가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골프 구력은 12년 정도 됐는데 평소 소피아그린CC에 자주 왔었던 덕분에 그린 형태를 좀 알고 있었어요. 조금 앞에 공을 떨어뜨려서 경사면을 타고 흐르도록 시도를 했고 내리막 그린이었던 덕분에 공이 홀 안에 빨려 들어가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동료들은 물론, 뒤 따라오던 팀들까지 모두 자기 일처럼 축하해주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소피아그린CC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접근성에 비해 그린이나 코스 관리가 매우 잘되어 있어서 좋아하는 장소인데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거짓말처럼 맑게 갠 날, 모든 것이 다 좋아라!”

김명선 회원(인천목항초), 송성숙 회원(대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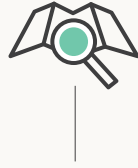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보고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 신청을 해봤는데 당첨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어제 밤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도 많았는데 막상 라운딩을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날이 개서 기분도 무척 좋았습니다. 골프장 수준은 물론, 함께 한 동반자, 캐디분들까지 다 너무 좋아서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운딩은 즐겁게, 행운은 함께, 기쁨은 두 배!”

전찬홍 회원, 진호택 회원, 최대위 회원, 신홍교 회원(강원 강서중)

주변사람들에게 오늘 행사에 대해 추천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응모를 했는데 운이 좋게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온 네 사람은 고교, 대학교 선배 관계로 평소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중인데 이렇게 행운이 깃든 라운딩을 함께 다니 더욱 뜻깊고 즐거웠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골프를 즐기는 건 삶의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많은 공제회 회원들이 이런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The-K 휴스데이

올 가을 여행은 바로 이곳! 오~래 머물수록 혜택이 커지는 가심비 끝판왕!

공제회원 최저 1만원에 숙박가능한 장기투숙객 특별요금제

난다 긴다 하는 곳들은 다 가봤다. 사람이 밟아 채일 정도로 혼잡한 인파 속을 뚫고 시간을 쪼개 명소들을 들렀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인증샷을 남기느라 연신 카메라 셔터만 눌러댔다. 이것은 여행이 아니라 전투에 가깝다. 이제는 한곳에 오래 머물며, 현지의 속살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느린 여행이 간절해진다. 장기투숙 할인혜택도 받고, 며칠 머물 때 필요한 서비스도 따라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그래, 바로 이곳! 가심비 끝판왕 The-K호텔이 딱이다.

“사계절 온천욕으로 편안한 휴식을”

The-K지리산가족호텔

예로부터 지리산 온천수는 게르마늄과 탄산나트륨이 다량 함유된 유황천으로 피부병과 신경통, 관절염과 당뇨병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The-K 지리산가족호텔에서는 사계절 내내 온천욕을 즐기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피톤치드 가득 내뿜는 지리산품 안에 있으니 호텔 산책로는 물론 걸음을 옮길 때마다 힐링이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순천자연생태공원, 화엄사, 광한루, 성삼재 등 유명 관광지까지 차로 1시간 이내에 닿으니 여행 사이사이 심신의 피로를 풀고, 다음 여행을 이어갈 에너지를 채워가도 좋다.

공제회원이라면 The-K지리산가족호텔만의 휴스데이 힐링 특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7일을 묵는 경우 공제회원가와 3만원 회원특별할인을, 8일 이상 묵는 경우 3만원 휴스데이 추가할인까지 더 받을 수 있어 17평 객실을 일~목요일 1만원(금·토 별도)에 이용 가능하다. 장기투숙할 경우 구례 전통5일장 무료 픽업, 야외 바비큐장 무료 이용, 호텔텃밭 무료체험 등 특별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으며 숙박 일수에 따라 커피숍 이용권&온천사우나, 산수유세트, 조식 이용권 등이 제공되기도 한다.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317

☎061-783-8100



<The-K지리산가족호텔>

	구분	일~목	금	토
17평	3~7일	4만원	5만5천원	8만원
	8~30일	1만원	2만5천원	5만원
20평 (후면)	3~7일	5만원	6만5천원	9만원
	8~30일	2만원	3만5천원	6만원
23평	3~7일	7만원	9만원	13만원
	8~30일	4만원	6만원	10만원

“산과 바다를 두루 만끽하기에 안성맞춤”

The-K설악산가족호텔

철마다 옷을 갈아입는 설악산의 사계절 중 단연 으뜸은 가을 설악산이다. 대청봉의 단풍이 절정을 이룰 때 오르는 것도 좋지만 늦여름의 열기가 사그라지고 가을이 얼굴을 내밀 때 호젓하게 오르는 설악산은 더욱 좋다. 입맛 돋우는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한 대포항과 물치항도 차로 10여분 거리에 있다. 다양한 먹거리가 풍부한 속초중앙시장이나 꿈을 이뤄준다는 해수관음상이 있는 낙산사까지도 차로 20분이면 닿는다. 바다와 산을 두루 감상하며 가을을 맞이하기에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제격이다.

The-K설악산가족호텔의 경우 공제회원을 위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묵는 기간이 3~7일 이내라면 20평 객실을 일~목요일 2만5천원(금·토 별도)에 이용할 수 있고, 8일 이상이면 휴스테이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20평 객실을 일~목요일 1만원(금·토 별도)에 묵을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리모델링을 하여 장기투숙객이 자연 속에서 편안히 머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29평형 레지던스 객실 5실과 코인세탁실 등 부대시설을 새로 만들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도 야외 바비큐장, 사우나, 코인노래방, 휴게공간, 키즈존을 만들어 가족 단위, 단체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강원 속초시 설악산로 470-7

☎ 033-639-8100



<The-K 설악산가족호텔>

구분	일~목	금	토	
20평	3~7일	2만5천원	4만5천원	6만원
	8~30일	1만원	3만원	4만5천원
29평	3~7일	5만5천원	8만원	10만원
	8~30일	2만5천원	5만원	7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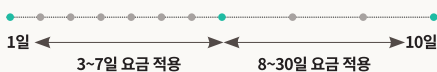


<The-K 호텔경주>

구분	일~목	금	토	
일반실 (후면)	3~7일	6만5천원	7만원	8만원
	8~30일	5만원		
준특실	3~7일	10만5천원	11만원	11만5천원
	8~30일	7만원		

TIP

*모든 요금제는 각각의 숙박 기준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ex) 총 10일 숙박시



“낮보다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선사”

The-K호텔경주

경주의 밤은 어느 도시의 낮보다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동궁과 월지에서 출발해 첨성대, 계림(내물왕릉), 교촌마을, 월정교까지 이어지는 코스는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다.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황리단길과 경주월드를 비롯해 방문객들이 늘 끊이지 않는 불국사와 석굴암까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경주는 긴 호흡으로 천천히 둘러보며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

핫한 볼거리들이 가득한 보문단지에 위치한 The-K호텔경주는 천연알칼리성 온천수가 용출되는 스파월드를 비롯해 150여 개의 온돌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공제회원을 위한 휴스테이 요금에 따라 묵는 기간이 3~7일 이내라면 일반실을 일~목요일 6만5천원(금·토 별도)에 이용 가능하고, 8일 이상일 경우 8일째부터는 매일 5만원에 일반실에서 묵을 수 있다. 장기투숙할 경우 식음료, 스파월드, 세탁실 등을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전면부 객실 우선 배정 및 전담 직원의 원스톱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인근의 다양한 테마관광시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심비를 충족시키는 여행을 선사해준다.

📍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5

☎ 054-745-8100

장기저축급여·일반대여 이율 변동 안내

9월 1일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이자율)이 3.60%에서 3.74%로 인상된다. 또한 가입가능 상한구좌수도 기존 1000구좌(월 60만원)에서 최고 1500구좌(월90만원)까지 확대되며, 원리금 계산 방식도 기존의 배율제에서 이자율제로 보다 쉽게 바뀐다(p64~65 참조). 한편, 장기저축급여 급여율 변경에 맞춰 일반대여 이율도 3.6%에서 3.74%로 변동된다. 일반대여는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2017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탈퇴가정급여금)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여제도다. The-K복지누리대여, 분할급여대여 이율은 동일하다. ☎1577-3400

뮤지컬 ‘맘마미아!’ 9월 23일~10월 13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함께하는 ‘문화라운지’ 뮤지컬 관람행사가 10월 25일 천안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매회 최고의 뮤지컬 배우와 ‘아바’의 음악 그리고 탄탄한 구성까지 더해져 메가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뮤지컬 ‘맘마미아’의 탄생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공연으로 천안 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회원 1000명 초청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에 공제회 회원을 초대한다.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은 수려한 자연환경에서 펼쳐지는 세계적 뮤지션들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음악축제로 2004년 첫 회를 시작으로 올해 16회를 맞이한다. ‘제2의 스티비 윈더’로 불리는 18세 천재 피아니스트 매튜 휘터커를 만나 볼 수 있는 10월 5일 둘째 날 공연에 총 2000명(회원 1인 2매 제공)을 초청하며, 당첨 시 제세공과금은 회원 부담이다. 참여 신청은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를 통해 9월 18일까지 할 수 있다.

‘양상블 디토 리사이틀’ 초청행사, 9월 18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0월 8일 강릉아트센터에서 ‘양상블 디토 리사이틀’ 공제회 회원 초청행사를 개최한다. 2007년 시작된 양상블 ‘디토’는 지난 12년간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프로젝트로 불린다. 이번 10월 공연은 ‘디토’의 마지막 공연이라 의미가 더한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을 필두로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정’과 ‘자니 리’, 첼리스트 ‘문태국’ 그리고 피아니스트 ‘스티븐 린’이 함께 슈만 피아노 오중주와 드보르작 피아노 오중주를 들려준다.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The-K행복콘서트’ 4개 지역 개최, 9월 18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는 ‘The-K행복콘서트’를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청주, 광주, 창원 4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콘서트는 1부 클래식, 2부 가수 공연으로 진행된다. 클래식 공연에는 오케스트라공연, 뮤지컬 배우 최정원 등이 출연하고, 가수공연에는 김건모, 백지영, 홍경민, 임창정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응모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9월 18일까지 받는다.

오케스트라

김건모

백지영

최정원

홍경민

임창정

2019년도
The-K행복콘서트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지역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공연장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	[청주] CJB 미디어센터	[광주] 전남대 민주마루	[창원] 성산아트홀
일시	2019.10.12(토) 18:00~20:00	2019.10.26(토) 18:00~20:00	2019.11.02(토) 18:00~20:00	2019.11.09(토) 18:00~20:00
초청인원	3000명	840명	750명	1300명
출연진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부 [클래식]	신동원(테너), 한경미(소프라노), 이동신(팔페라), 한가영(팔페라)	윤병길(테너), 한가영(팔페라), 최정원 with 더뮤즈 (뮤지컬)	정익근(테너), 한가영(팔페라), 최정원 with 더뮤즈 (뮤지컬)
	2부 [대중가요]	임창정, 백지영, 김건모	홍경민, 홍진영, 김건모	홍경민, 장윤정, 김건모
MC	김병찬 아나운서	박서진 아나운서	박서진 아나운서	박서진 아나운서

*상황에 따라 출연진 변동 가능

The-K호텔 가을 패키지



The-K호텔서울, 레드 어텀 패키지 출시

The-K호텔서울은 가을을 맞아 레드 어텀(Red Autumn) 패키지를 10월 31일까지 선보인다. ▲패키지 A는 일반실 1박과 조식 뷔페 2인이 15만원 ▲패키지 B는 일반실 1박과 더파크 석식 뷔페 2인이 18만원 ▲패키지 C는 일반실 1박과 우첼로 가든 소고기 바비큐 메뉴 1종을 포함하여 15만원 ▲패키지 D는 일반실 1박과 우첼로 가든 돼지고기 바비큐 메뉴 1종이 포함되어 13만원이다. 모든 패키지 이용객은 코엑스 아쿠아리움 이용권을 1만7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우첼로와 더파크, 델리에서 식음료 15% 할인, 사우나 및 헬스장 이용 시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우첼로 가든에서 가을 풍경을 만끽하며 식사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우첼로 가든 바비큐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그릴을 이용하여 직접 구워 먹는 셀프 바비큐로 운영되며, 소고기 바비큐 메뉴로 안심과 등심, 갈빗살, LA갈비구이가 각 부위별로 4만원~4만5000원, 돼지고기 바비큐 메뉴로 삼겹살, 갈매기살, 목살구이가 각 부위별로 2만5000원이다. 식사 이용고객에게는 샐러드 바가 무료로 제공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02-571-8100

The-K호텔경주, 9월 특별 패키지

The-K호텔경주는 9월 '바람이 분다-낭만패키지'와 '추석 패키지'를 운영한다. ▲'바람이 분다-낭만패키지'는 스탠다드객실 1박과 조식 2인 포함 12만5000원~14만원이다. 단, 9월 12일~14일 추석연휴 기간은 제외이며, 온돌 객실 이용 시 5,0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추석 패키지'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용 가능한 패키지로 스탠다드객실 1박과 조식 2인 가격이 17만원이다. 한식당에서는 계절 특선메뉴인 신토불이 추여탕, 더덕구이정식을 선보인다.

☎054-745-8100

The-K설악산가족호텔, 할인 이벤트

The-K설악산가족호텔에서는 객실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20평 객실을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만5000원, 금요일은 4만5000원, 토요일은 6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객실 특별할인 이벤트는 전화 예약만 가능하며, 1인 1실에 한한다. 성수기(10/2~5, 10/8, 10월 금, 토요일, 12/24, 12/30, 1/1) 및 극성수기(12/31) 기간에는 별도 요금이 적용된다. 휴스테이 힐링 이벤트도 진행한다. 설악산의 절경이 어우러진 대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과 여유를 즐기고 싶어 하는 장기투숙 관광객들을 위해 20평형과 29평형을 특별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한다. 8일 이상 투숙 시, 8일째부터는 20평 기준 특별가 1만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최근 노후된 시설 전반을 리모델링해 투숙객들이 최대한 쾌적하고 편안하게 머물며 쉬고 여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투숙객을 위한 레지던스객실과 코인세탁실 등을 신설하고, 가족단위나 단체관광객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 바비큐장과 사우나, 코인노래방, 휴게공간, 키즈존 등을 만들어 편의시설을 대폭 확장했다.

☎033-639-8100

The-K지리산가족호텔, 추석 '송편 만들기' 체험 이벤트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추석 당일인 9월 13일 '송편 만들기' 체험 이벤트를 준비했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투숙 중인 회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며, 참여 시 소정의 상품도 받을 수 있다. 선착순 마감이며 예약은 전화로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추석연휴 기간 동안 옷놀이, 투호놀이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이벤트도 진행된다. 한편, The-K지리산가족호텔 인근의 구례화엄사에서는 사찰과 지리산을 찾는 참배객과 관광객을 위해 9월말까지 산문을 야간(22시) 개방한다. 산사가 주는 고즈넉함과 살아 숨 쉬는 우리 문화재의 멋과 향기를 느낄 수 있다. ☎061-783-8100

The-K Guide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1971년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회원수 81만명, 자산 37조 원, 전국 18개 시도지부와 8개 출자회사(The-K호텔앤리조트, The-K제주호텔, The-K손해보험, The-K저축은행, The-K소피아그린CC, The-K서드에이지, The-K에다함상조, The-K교직원나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축 | 더 풍요로운 노후를 약속합니다



장기저축급여

고이율 저율과세 저축상품【이율 : 연복리 3.74%(퇴직시)】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이며, 장기 저축급여를 가입하시면 회원자격이 부여되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분할급여금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고이율 연금형 상품 【이율 : 연복리 2.99%(변동금리)】

고령화시대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 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중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노후생활 보장제도입니다.

목돈급여

현직 회원을 위한 고수익 저축상품【이율 : 연 2.28% 내외】

재직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급여율(이자율)로 운용하여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생활급여

퇴직 회원을 위한 고수익 노후생활 저축상품【이율 2.28~2.53%】

회원이 퇴직 시 수령한 각종 연금이나 본회의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받아 높은 급여율(이자율)로 운용하는 노후생활 보장제도입니다.



온라인서비스 소통과 공감의 문이 열립니다

- 홈페이지 : www.ktcu.or.kr / m.ktcu.or.kr
- The-K 매거진 : www.thekmagazine.co.kr
- 블로그 : blog.naver.com/ktcu_attic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withKTCU
- 유튜브 : www.youtube.com/withKTCU
-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withKTCU

- 회원콜센터 : 1577-3400
- 보험콜센터 : 1577-3993

대여 | 어려울 때 튼튼한 희망이 됩니다



일반대여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 급여금(2017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탈퇴 가정급여금)에 보증보험대여 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무이자대여 회원이 폐결핵 진단을 받거나 질병·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 시 또는 재해로 인해 주택 및 부속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무이자로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The-K복지누리대여 회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제도입니다.

미소누리 최초대여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첫 대여를 이용하는 회원 대상

행복누리 결혼대여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 전·후 6개월 이내인 회원 대상

희망누리 출산대여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입양 후 3년 이내인 회원 대상

든든누리 주택대여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구입·임차 시 잔금납부일 전 후 3개월 이내인 회원 대상

분할급여대여 회원 퇴직 시 대여 잔액을 즉시 상환하지 않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대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회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조금 |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나눕니다



출산축하금 회원(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및 회원의 배우자가 자녀 출산 및 입양 시 지급합니다.

고구좌회원 축하금 전년도말 장기저축급여 총 누적구좌수가 상위 1% 이내 이고, 총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인 일반회원에 지급합니다.

결혼기념품 회원 결혼 시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신규회원가입 축하기념품 장기저축급여 최초 가입 회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재가입 축하기념품 직전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일반회원이 중도 탈퇴 후 재가입 시 지급합니다.

특별회원가입 축하기념품 퇴직생활급여 가입(적립형 제외) 또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약정 시 지급합니다.

상병급여금 회원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된 회원이 원상회복 불능의 상병으로 퇴직 시 장기저축 퇴직급여금 이외에 별도의 무상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유족급여금 회원이 재직 중 사망했을 때 장기저축 퇴직급여금 이외에 별도로 무상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보험 | 미래에 흔들리지 않는 디딤돌을 놓습니다



- 종합보험** | 종합공제(1610) - 교직원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종합보험
| 더블업종합공제(1610) - 은퇴 이후 2배 보장받는 종합보험
- 암보험** | 두번보장암공제(1612) - 두 번째 암까지 똑똑하게 보장받는 암보험
| 교직원라이프건강공제(1707)(갱신형) - 암진단비에 집중한 실속있는 건강보험
| 실속암공제(1905)(갱신형) - 3대 질병 대비에 집중한 건강보험
- 자녀보험** | 자녀공제(1612) - 월 1만원으로 자녀를 지키는 어린이보험
| 명품자녀공제(1610) - 자녀의 건강과 교육을 한 번에 해결하는 어린이보험
- 시니어보험** | 시니어공제(1612) - 제2의 인생, 시니어라이프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 시니어암공제(1610)(갱신형) - 고령층(고혈압, 당뇨환자 포함)을 위한 암보험
- 재해보험** | 재해공제(1612) - 방학기간 동안 2배 더 보장받는 상해보험
- 간편심사보험** | 교직원라이프간편가입공제(1707)(갱신형) - 유병자, 고령자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
- 특화보험** | 교직생활퍼펙트공제(1805) - 선생님의 교직생활에 꼭 필요한 교원특화보험
| 마음건강보장공제(1811) - 교육가족의 마음건강까지 생각하는 보험
- 치매보험** | 치매공제(1907) - 교육가족 전용 치매보험
| 간편가입치매공제(1907) - 유병자, 고령자를 위한 치매보험

The-K 행복서비스 | 행복한 일상에 특별한 순간을 더합니다



- 문화예술 공연** 문화라운지, **콘서트** 행복콘서트, **전시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 **지역공연** 찾아가는 행복나들이 1·II, **기획공연** 스승의 날 회원 초청 행사
- 도서 북&JOY** 도서증정
- 취미여가 스포츠** 스포츠&JOY, 프로야구 같이 즐기기, 지역별 프로스포츠, 회원의 날 협찬, **영화** 씨네&JOY, **지부대관** 컷쳐&JOY(지역별 문화행사), **가족체험** 에듀&JOY(가족단위 교육체험활동), **실버문화** 은빛동행

제휴서비스 | 삶의 모든 길목에서 행복을 맞이합니다



- 호텔·리조트·콘도** 5개의 직영호텔 및 유명 관광지에 위치한 호텔 및 콘도와 협약을 맺어 할인된 객실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레저·스포츠·교통** 레저·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하여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복지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약장** 전국 4개 교직원공제회관 내 예약장과 폐백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장례식장** 주요 대학병원, 종합병원, 대형 장례식장과 제휴하여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법률·세무상담** 법률·세무 문제의 상담 편의를 위해 주요 도시에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 제휴카드** 하나교직원복지카드, 신한교직원복지카드 등 각종 제휴 할인, 폭넓은 복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문화·공연** 인터파크 및 CGV, 메가박스(직영극장)와 제휴하여 다양한 문화·공연 상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The-K 휴스테이** 3개의 직영호텔(경주, 지리산, 설악산) 및 제주 리조트 등 제휴를 통해 장기투숙 회원을 위한 특별 요금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The-K 마음심** 일상의 작은 고민부터 다양한 직장내 업무 스트레스까지 무료로 전문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약 및 상담

숙박시설

교직원공제회 출자호텔(회원할인)

- The-K호텔서울 ☎ 02-571-8100
- The-K호텔경주 ☎ 054-745-8100
- The-K지리산가족호텔 ☎ 061-783-8100
- The-K설악산가족호텔 ☎ 033-639-8100
-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 064-729-8100

대명 한화리조트(법인회원권 이용)

- 대명리조트 전국 12개소
- 한화리조트 전국 14개소
- 예약: ☎ 교직원나라(teachiworld.com)
- 문의: ☎ 1577-1382

레저생활

- 소피아그린CC(골프장)
- ☎ 031-887-8100
- The-K서드에이치(실버타운)
- ☎ 055-530-8100
- The-K손해보험 ☎ 1566-3000
- The-K저축은행 ☎ 02-569-5600
- The-K에다합상조 ☎ 1566-6644
- 티처월드(교직원 온라인 복지사이트)
- teachiworld.com ☎ 1577-1382
- S2B(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 s2b.kr ☎ 1577-3309

무료 법률상담(변호사)

- 서울 남승한 ☎ 02-591-8008
- 유수왕 ☎ 02-2051-8881
- 김병직 ☎ 02-592-7456
- 부산 진경배 ☎ 051-715-0308
- 대구 박경환 ☎ 053-751-6637
- 인천 박준범 ☎ 032-866-5660
- 광주 김정완 ☎ 062-222-0101
- 대전 김동환 ☎ 042-472-4720
- 울산 이상구 ☎ 052-272-6000
- 경기 이영직 ☎ 031-386-0100
- 강원 유지한 ☎ 033-255-5601
- 충북 오원근 ☎ 043-290-4000
- 전북 김대호 ☎ 063-275-0006
- 경남 김상균 ☎ 055-266-4747
- 제주 나인수 ☎ 064-726-6605

무료 세무상담(세무사)

- 서울 권병익 ☎ 02-2634-4201
- 서진하 ☎ 02-544-0818
- 인천 유명석 ☎ 032-864-9922
- 대전 주우성 ☎ 042-253-6901
- 광주 김영빈 ☎ 062-371-9611
- 대구 최규대 ☎ 053-756-1800
- 부산 강연경 ☎ 051-611-1125

무료 심리상담

- The-K마음심
- ktcu-hue.com ☎ 1566-5228

회원 예약장

- 전국 4개 교직원공제회관 예약장
- 광주(농성동) ☎ 062-352-1331
- 대전(탄방동) ☎ 042-488-1111
- 경기(수원시청역) ☎ 031-224-2030
- 전북(전주 서신동) ☎ 063-253-9790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글쓰기가



아직 유효한 이유

----- ‘읽히는 글’을 쓰는 방법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영상 콘텐츠가 각광받는 시대이다. 시각적인 요소에 반응하고 짧은 호흡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가 됐다. 이제는 정보의 범람이라는 말도 식상할 정도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닌, 정보가 자신을 찾아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도 아날로그 글쓰기가 유효한 이유는 글쓰기 또한 영상과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첨예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글. 이종서(브랜딩 책쓰기 전문 코치)

어떤 특별한 장치나 도구가 필요 없이 펜이나 노트북만 있으면 글을 쓸 수 있는데도 마냥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단계와 글을 직접 써나가고 정리하는 단계 간의 간극이 길어질수록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얀 백지장을 앞에 두고 ‘무엇을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은 깊어지는데 글은 쓰지 못한 채 시간만 하염없이 흐를 때 ‘글쓰기는 어렵다’라는 마음이 커진다. 그렇다면 자신만의 글쓰기를 해나가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 글을 읽을 대상은 누구인지 파악하라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도구로써 글쓰기를 바라봤을 때, 일기가 아닌 이상 내 글에 반응할 콘텐츠 소비자(독자)를 떠올리며 글을 써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글을 읽을 독자층이 명확하지 않으면 ‘읽히는 글’을 쓰기가 더 어렵다. 직장인을 위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직무부터

연령대, 사는 지역, 관심사를 구체화해 1인 한정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글은 사람의 심리를 움직이는 마지막 방어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는 이야기구나’라는 감정이 동할 때 좋은 글로 인식하게 된다.

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이유를 명확히 하라

동기부여, 목적이 불분명한 글쓰기는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 내 글을 읽고자 하는 대상에게 바라는 점이 글을 쓰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누군가에게 글로 알려준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내 글을 읽고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글쓴이 스스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글을 통한 정보전달에 집중할 것인지, 제시하는 상황에 대한 공감을 얻게끔 하고 싶은 것인지, 무언가 행동을 유도하는 설득을 가미하고 싶은 것인지 목적이 분명해야 글도 명확하게 쓸 수 있다.

글로 구체적 표현을 하는 연습을 하라

얼굴을 대면하고 나누는 대화는 표정과 몸짓으로 말을 보완할 수 있다. 말 한마디 없이 손가락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눈에 보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은 글쓴이와 글을 읽는 사람이 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는다. 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글쓴이에게 물어볼 수도 없다. 이에 글에 보이지 않는 상상력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즉 구체적으로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맛집에 가서 국수를 먹었다'라는 구절은 단순 '글'은 될 수 있지만 상상력을 자극하지는 않는다. 다음은 글에 살을 붙이고 구체화한 내용이다.

“오늘 오후 2시에 ○○지역 국숫집에 갔습니다. 기다린지 10분이 지날 즈음,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멸치 육수 국물에 하얀 면발이 담겨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을 붙여 구체화해보면 글을 읽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떤 종류의 국수를 먹었는데요?”라는 질문에 미리 답을 할 수가 있다.

완벽한 글쓰기는 없고 완벽한 수정만 존재한다

글을 써나갈 때 한 구절, 한 문장 완성될 때마다 의미부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내 글이 이상하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 A4 용지 1장이라는 목표 분량을 정했다면 일단 분량을 채우는 데 의의를 둔다. 분량이 채워지기도 전에 끊임없는 수정을 가한다면 글을 쓰는 재미보다는 스트레스에 짓눌리게 된다. 일정 분량을 채우고 잠시 글을 묵혀 두었다가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면 마땅치 않은 부분이 눈에 보인다. 그 부분부터 문맥과 어휘를 고쳐나가면 부담이 덜어진다. 수정만이 글쓰기의 완성도를 높인다.

이렇게 ‘읽히는 글쓰기’를 위해서 대상을 한정하고, 글의 목적을 명확히 한 후 구체적 표현을 곁들여 나간다. 목표 분량이 완성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천천히 자신의 글을 최대한 제3자 입장에서 되돌아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감각이 생길 것이다.

글은 그저 쓰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이자 누군가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매개체이다.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경험에 생각을 덧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공감하는 시대가 됐다. 자신의 전문성을 글로 내보인다면 퍼스널 브랜딩에도 도움이 되며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생각과 마음을 담은 글이 누군가와 공감할 때 글쓴이 또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저 솔직하게, 진솔한 마음을 담아 나의 생각을 한 줄 한 줄 써내려가 보면 어느새 글쓰기의 두려움은 저만치 달아날 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일수록 내면을 표현하는 글쓰기를 통해 상대와 진실된 소통을 해보는 건 어떨까? ㉔



.... 글쓰기에 도움되는 책



기자의 글쓰기
박종인 저,
북라이프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 저,
메디치미디어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유시민 저,
생각의길

**초등공부,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
김성효 저,
해냄





9월호 독자퀴즈



이번 호 <The-K 매거진>을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99명에게 모바일문화상품권(3만원)을 드립니다.

※ 독자퀴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jwcy2000@naver.com 정답과 보내시는 분의 성함,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세요.

Quiz 1.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삼각형 학교로 직육면체 형태의 정형화된 공간이 아닌 삼각형 건물로 고정관념을 깨고 전국의 명물이 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Quiz 2. 이번 호 <The-K 매거진>에 수록된 플레이버튼 ▶은 총 몇 개일까요? (표지 포함)

Quiz 3. 아래 두 장의 사진 중 다른 부분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찾아 표시한 후 사진을 찍거나, 웹진이나 앱 구독자의 경우 다른 부분을 글로 설명해 보내주셔도 됩니다.



독자 의견

<The-K 매거진>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칭찬부터 톡톡 튀는 아이디어, 그리고 따끔한 충고까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독자 메일은 <The-K 매거진>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느낀 점과 새로운 의견을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모바일문화상품권(3만원)을 드립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wcy2000@naver.com
*메일을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는 계절
향기로운 커피 한잔하며 여유를 만끽해보아요~



| 이벤트 기간 | 9월 1일 ~ 30일



SPC모바일상품권
10,000원권(100개)



GS편의점모바일상품권
5,000원권(200개)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Tall(500개)



참여 방법

경품 옆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9월 즉석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정보를 확인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유의 사항

-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은 10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 이벤트 응모는 1일 1회만,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가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재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